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8 2017

VOL. 254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S8+

Coral Blue is here

Seluruh gambar yang ditampilkan hanya untuk tujuan ilustrasi saja. Peringkat IP68 berarti perangkat dilindungi terhadap masuknya benda asing padat dan masuknya bahaya air hingga kedalaman 1.5 meter sampai dengan 30 menit, dalam kondisi pengujian tertentu yang telah ditentukan. Menurut hasil tes terakreditasi. Hasil bisa berbeda. Peringkat IP68 tidak berarti perangkat kedap air.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 SamsungMobileIndonesia | @Samsung_ID | Samsung_ID | Samsung Indonesia

2016-2018 한국방문의해

www.koreanair.com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출발	도착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5	0715+1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0	2025	매일	77W

*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AUGUST 2017

SUMMER STORY

CASHBACK

2주따 / 5주따 루피아 이상 구매시
최대 150.000 루피아 롯데상품권 증정
(7월31일 ~ 8월13일)

롯데쇼핑 에비뉴가 새로운 쇼핑 패러다임으로 당신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편의 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WE ARE OPEN

LOTTE

LOGISTICS CENTRE

RENT AVAILABLE:

DRY STORAGE (2.26 Ha)

COLD STORAGE (2.800 m^2)

CONTACT:

Yeni Rosita : 0816 163 3478

LEE JAE UK : 0812 9021 5154

PT. LOTTE LOGISTICS INDONESIA

Jababeka III, CIKARANG

Jl. Tekno Boulevard Blok BP5B Kawasan Industri III

Cikarang Bekasi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강희중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황윤홍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랩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서 정년이란 개념도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젠 힘들게 입사를 하고나면 언제 올지 모르는 퇴사를 위해
회사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합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 지금은 준비해야하는 시간이라고 사회는 가르칩니다.
하나에 목을 매지 않을 또 다른 능력을 탑재해야하는 부담감으로
현재도 저당잡힙니다.

지금 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현재를 살기도 만만치 않은데 말입니다.

그저 '잘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246
편집장 홍석영

contents

2017. 8. 통권 254호

2017 8

이 달의 읽을거리

차 례

8 김문환 논설위원 칼럼

12 이선진 전대사의 대사일기

18 신성철칼럼

20 편집위원칼럼 <황윤홍>

24 집중! 이 사람 / 박재한 KOGA회장

30 JIS 소식 <차민경>

31 공감 <조현영>

34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37 이색자격증에 도전하세요!

38 김용욱의 경제이야기

42 월간 뉴스 브리핑 <자카르타경제신문>

46 김종성의 생활법률

48 지상갤러리 <김은정>

50 행복에세이 <신정근>

53 여기~ 맛있어요 <이승진>

54 이 표현이 맞나요? <최서혜>

58 '신개념의 인문학' 강의를 듣고 <전주영>

60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월간 문화재사랑>

62 인도네시아 민법 <이승민>

64 이규보[이옥설] <정병헌>

69 생활정보

한인사회 이모저모

제28대 봉제협의회 박재한 회장 취임식 16

실패는 활용의 대상이다 17

자카르타 급속 수처리시설 준공 22

KOICA, 인도네시아 제5차 석사연수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23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국 유학생 만남의 날』 개최 28

인우회. MOU 체결 29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개최 32

2017 전라남도 무역사절단 상담회 33

ASEAN 지역 대북정책 설명회 33

Gili Kapal, Lombok Timur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왕(王)의 나무, 겨울나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수; 문 대통령이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사령관(좌), 이등병으로 장진호전투에 참전하였던 스티븐 옴스테드 예비역 해병중장(우)과 함께 식수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1차 오일쇼크 직후의 자원무기화 추세에 편승하여 국제 원목 가격도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남부깔리만딴 지역에 산림개발업종으로 진출한 K사는 인근지역에 제2의 임지를 확보하여 국영산림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이 지역은 양질의 원목이 생산되어 열대림 서식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었으며, 그래서인지 100년 이상 썩지 않는다 하여 철목(Kayu Besi)이라고 별칭되는 울린목(Kayu Ulin)의 주산지로도 알려져 있었다. 울린목은 인도네시아 전통가옥의 기둥, 대들보 및 바닥재, 또는 전신주, 선박 등 다용도로 쓰이는 긴요한 재목이었으며 조상 대대로 이어온 토착민들의 생계수단이기도 했다. 산림개발 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도로건설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까닭에 생산활동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공백기간이 생기게 된다. 자카르타 지사장 L 씨는 어느 날 사장 앞에서 자신 넘치는 목소리로 브리핑에 열중하고 있었다. 첫 수출 선적까지는 아직 1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의 자금압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임지 내에 분포되어 있는 울린목을 생산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자는 제안이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자금이 조성된다 하니 사장도 반대할 리 없었다. 대관청 인허가를 급행으로 수속하고 곧 생산에 착수하게 되었다.

토착민들이 나무 한 그루 도끼로 벌도 하는데 몇 시간 걸릴 것을 기계톱을 들이대면 몇 분이면 나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며칠 만에 곧 내다 팔 수 있는 울린목이 야적장에 높게 쌓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고 나면 눈에 띄게 재고품의 높이가 줄어드는 것이다. 경비원을 보강하여도 밤새 재고감소는 계속되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인 직원들이 꼬박 밤을 세우며 교대로 야간경비를 서기 시작했다. 수입원이 막혀버린 주민들이 험악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시간, 현지 직원 한 사람이 한국인 총무과장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한다. "미스터 김, 긴급 제보하러 왔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총기를 입수하여 한국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종이 한 장, 거기엔 한국인 숙소 약도가 그려져 있었고 그 중 울린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인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주 일요일, 경장비 정비사인 S씨는 인근 대도시인 반자르마신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왕년에 청계천 바닥에서 주먹을 좀 썼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었다. 중간지점인 군청소재지까지는 부하직원의 오토바이에 편승하여 무사히 달려왔다. 그리고 반자르마신행 마이크로 버스로 옮겨 타려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것이었다. 권총이었다. 그를 한적한 숲 속으로 몰아 부쳤다. 조상대대 생계를 이어온 그들 토착민들의 밥그릇을 뺏어간 한국인들은 강탈자들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육체적인 린치를 가하기 시작했다. S씨는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인내한 덕분에 저녁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풀려 나오게 되었다.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자진 귀국하고 말았다. 일련의 사건보고를 접한 자카르타 지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게 되자 이젠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부업 한번 해보려다 본업까지 망칠 판이었다. 사장한테 자신 있게 브리핑한 일이 엊그제였지만 이젠 온갖 질책을 감수하며 '울린사업 포기'에 관한 사장재가를 또 받아내야 했다. 그리고는 즉각 산림부와 주정부에 공한을 보내 "당사는 금일 부로 울린 벌채사업을 중단할 것이며 더 이상 지역주민의 권익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과 향후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을 약속하게 되니 외국기업으로서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의 교훈을 얻게 된다.

47년 만에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한 사우디 아라비아 살만왕은 방문 첫날에 보고르 대통령궁 경내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몰려온 폭우로 인해 일정을 연기하여 다음날 오후 자카르타 대통령궁 앞 정원에서 거행하였다. 이때 식수한 수종이 바로 깔리만딴의 상징적인 수종이며 한국기업이 40년 전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연을 맺은 바 있던 울린목이었다. 대통령궁 관계자에 의하면 수분과 열기를 많이 먹을수록 강인해지는 울린목을 식수함으로서 연륜이 쌓일수록 양국관계가 더욱 강하게 다져지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상기 수종을 선택하였다 한다. 금년 82세인 살만왕이 백년 이상 썩지 않는다는 울린목처럼 백년 이상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은유적인 의미도 담겨 있을 법 하다.

2013년 10월 박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당시 대통령궁 앞뜰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선택된 수종은 고가품으로 알려진 아가티스(Agathis)라는 열대침엽수였다. 뉴질랜드가 원산지이나 지금은 동남아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전자기타 등 음향기기 재료로 쓰이며, 산림개발회사에 적을 두었던 한국인 직원들은 통나무 바둑판을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을 그런 수종이다.

폭우 속에서 우왕좌왕 할 때 의전관을 제쳐 놓고 대통령이 직접 우산을 받쳐들고 왕을 안내하는 과잉행보는 그가 메카의 지배자요, 관리자로서 성지순례 쿼타를 주무르는 왕이기 때문이든, 아니면 왕이 풀어 놓을 투자 보따리에 대한 기대감이었든 간에 무언가 특별대우를 내보이려는 의도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살만왕의 배다른 형인 화이잘 국왕이 인도네시아 공산쿠데타 전후의 혼란스런 정국과 중동전쟁 패배 직후 시오니즘의 위협을 받던 1970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행한 국회연설에서 동병상련의 어조로 "사우디와 인도네시아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은 낮에 떠 있는 태양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할 정도로 양국관계의 돈독함을 과시하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해외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인 6월 28일, 인근 버지니아주 콴티코에 소재하는 국립해병대박물관을 찾아 장진호전투기념관에 헌화한 직후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때 선택한 수종은 북미, 북아시아 등 추운 지방에서 잘 자란다는 산사나무였다. '겨울의 왕(Winter King)' 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 나무를 심으며 혹한을 이겨낸 장진호전투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투혼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표현하였다고, 대통령은 직접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한 그루의 나무를 놓고 양국관계의 우의는 물론,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통일된 한반도로 향하는 의지를 표출하듯, 국가 간에 주고받는 외교적 메시지가 그렇게 심오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김문환/논설위원

살만왕의 기념식수;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거들고 있다.

한·인니 친선 한복 패션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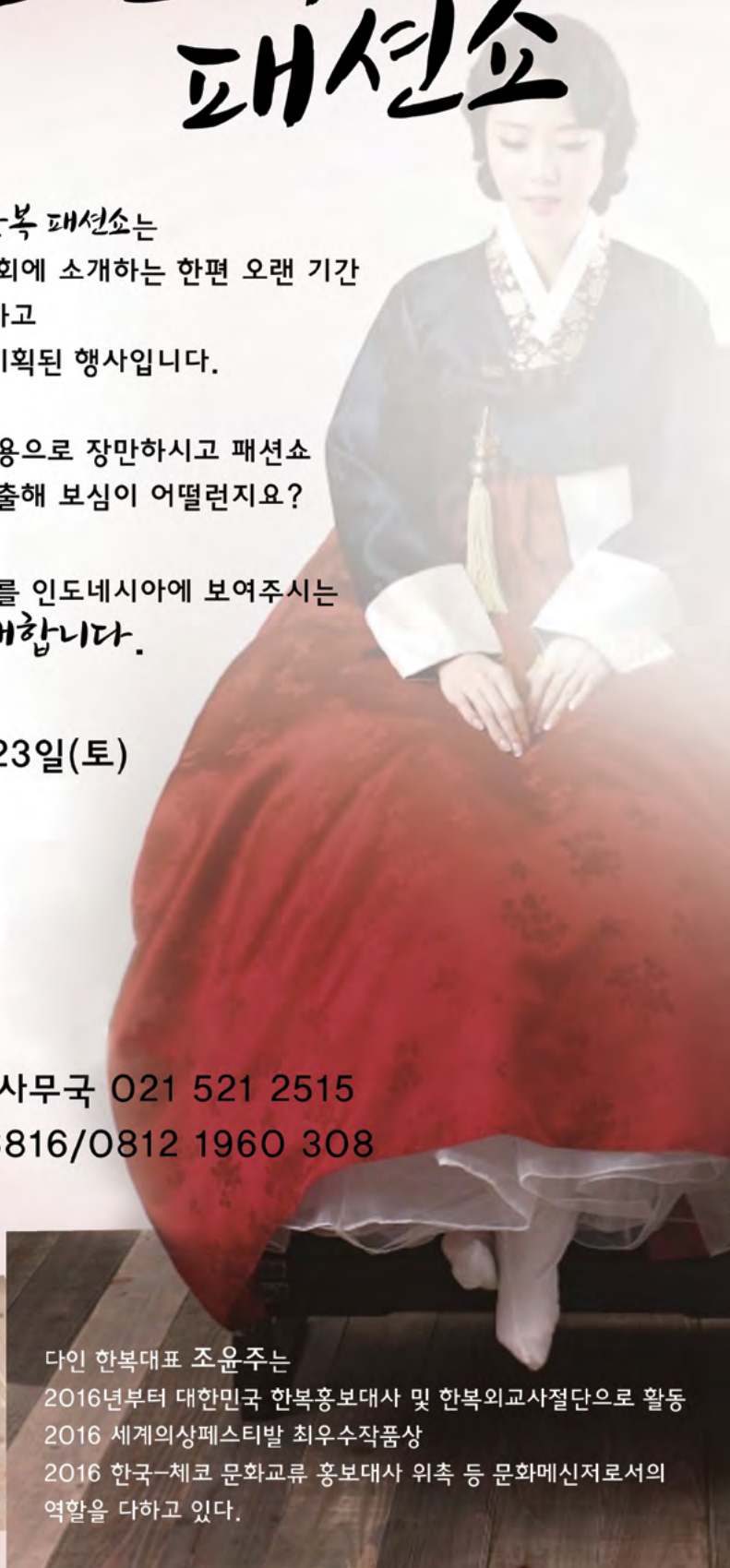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주관 한·인니 친선 한복 패션쇼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한복을 인도네시아 사회에 소개하는 한편 오랜 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용적인 의복으로서의 한복을 소개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유명 한복 디자이너 작품한복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만하시고 패션쇼
무대의 주인공도 되시어 인생의 명장면을 연출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한인동포들의 한복 패션쇼를 통한 한복의 미를 인도네시아에 보여주시는
의미 있고 즐거운 잔치마당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일 시: 2017년 9월 21일(목), 23일(토)
◇ 장 소: 롯데 에비뉴
◇ 주 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조윤주 한복 디자이너

◇ 주문 문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사무국 021 521 2515
최인실 사무국장 0812 9881 6816/0812 1960 308



다인 한복대표 조윤주는
2016년부터 대한민국 한복홍보대사 및 한복외교사절단으로 활동
2016 세계의상페스티발 최우수작품상
2016 한국-체코 문화교류 홍보대사 위촉 등 문화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선진 전 대사의 일기]

대사일기 제 7화 "교민, 문화, 체육"

지난 호에 이어

대사관과 영사업무

나는 2008년 외교부 퇴직 후 지난 10년 동안 동남아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다.
퇴직한 대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대사들이 영사 업무에 너무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아세안 10 개국에 한국 방문자가 작년(2016년) 한 해 600 만 명을 넘었고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 반면, 아세안 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은 주재관(외교부 이외 부처에서 파견된 외교관)을 포함하여 4~10 명 규모의 작은 공관들이다.

대사가 영사업무에 매달리고 전전긍긍하면 정치, 무역, 투자, 문화 및 주재국과의 교섭 등 본연의 외교업무는 누가 할 것인가. 영사 창구에서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한국인 민원인은 "대사 나오라" 고 고함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일부 교민들은 대사나, 대사관을 영사업무에만 매달리도록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성숙한 교민 사회의 태도가 아니다.

한편, 내가 인도네시아 대사로 있을 때 동남아 지역 대사관 직원을 대폭 늘리고 수라바야, 발리에 영사관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나는 본부 외교부에게 미국,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 수를 줄이고 그곳에 근무하는 외교관 수도 대폭 줄여서 동남아 대사관의 인원을 늘리자고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 당시 미국은 유럽에 있는 미국 외교관을 대폭 삭감하여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로 재배치하였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 인원 규모가 너무 작아서 쉽지 않다. 우리 외교가 과거 냉전시대의 "반쪽 외교" 에서 벗어나서 소위 "全方位 외교" 시대가 되었지만 외교부 인원은 냉전시대에 비하여 늘지 않고 있다. 중국, 러시아, 동구, 중앙아시아 등 외교의 지리적 반경이 크게 넓어지고, 환경, 통상, 테러 등 세계적 이슈(global issue)까지 질적 확대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외공관의 인원과 예산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작은 정부" 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대사 인도네시아 태권도 대회" 창설

2006.8.5-6 제 1회 "대사 배 인도네시아 태권도 대회" 가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대회 첫날 개막식 때는 국기원의 한국 시범단이 참가하여 개막 분위기를 돋우었다. 둘째 날에는 유습 칼라 부통령이 참석하여 우승자들에게 우승기와 우승컵을 시상하였다. 인도네시아의 태권도는 뿌리 내린지 오래되었고, 중앙 협회와 지역마다 지부가 결성되어 있다. 첫 협회장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장인이자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맡았고, 그 후 군부 출신 실력자들이 역대 협회장을 맡아왔다. 교민 기업들이 도와서 협회운영비를 지원하고, 매년 국가 대표단을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국 태권도 사범이 국가대표팀 훈련을 맡고 있다.

2006년 봄.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 나라에 태권도 전국대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느 종목이든 시합이 자주 있어야 운동선수의 실력이 향상되고 그 종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된다. 그래서 대사관이 무엇을 지원하면 전국 대회 개최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동석하였던 한국 기업인이 예산은 자체 조달할 테니 대사관은 우승기와 盃를 제공하고, 시합 당일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인사의 참석을 주선해달라고 한다. 문동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당시)에게 요청하였더니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제 문 총장이 대회가 있기 이틀 전 8.3 세계태권도연맹 직원과 함께 자카르타를 방문하였고 국기원 시범단의 자카르타 방문도 주선하였다. 나는 문 총장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장, 협회인사 및 체육회 인사, 그리고 한국 사범단을 초대하여 관저 만찬을 가졌다. 개막식 행사에는 국기원 시범단이 시범을 보였고, 선수들은 세계태권도 연맹이 제공하는 경기용 도복을 입고 시합을 가졌다. 이 도복에는 점수 부위를 가격하면 점수가 자동으로 가산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첫 대회 때 칼라 부통령의 참석은 인도네시아 기업인협회(APINDO) 회장 소피안 와난디의 도움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첫 대회 개최 소식을 현지 언론에 띄울 수 있는 뉴스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부통령의 초청을 착안하였다. 소피안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칼라 부통령과 소피안 회장은 1960년대 학생운동을 같이 한 평생 동지이다. 소피안 회장이 부통령에게 운을 띄우고 나도 공식 초청 서한(별첨)을 부통령에게 발송한 지 며칠 후 우연히 골프장에서 부통령을 만났다. 부통령을 먼발치에서 보고, 다가가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초청하였더니 알고 있다고 하면서 선선히 응낙하였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인간적으로 만나 요청하면 쉽게 풀리지만 이를 공식 계통을 밟아 올라갔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 "대사 (Ambassador's cup)"인가?

누가 대회명칭을 "대사 배" 로 제안했는지 기억에 없다. 제1회 대회는 분명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를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 전국대회를 "한국 대사 배" 로 하는 것이 이상하여 그냥 "대사 배" 로 하였던 것 같다.

그 다음 해(2007년) 유도요노 대통령의 동서가 인도네시아 협회장이 되었다. 그는 제 2회 대회를 동부 칼리만탄 州 수도 사마린다에서 거창하게 개최하였다. 전국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경기장 주변은 물론 시가지에도 많은 태권도 깃발들이 나부끼도록 하였다. 시 전체가 축제분위기이다. 협회장이 대통령의 동서라는 프리미움이 성대한 대회 준비에 한 몫 하였을 것이다.

대회 첫날 현지기자가 협회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왜 "대사 배" 냐고 물었다. 아마 한국 대사 배인가를 문의한 것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초대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장이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장인이자 현 협회장의 장인이다. 그래서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기념하여 만든 이름이라고 답변하자, 기자들도 공감하고 협회장도 만족해하는 표정이었다.

대사 배 태권도 대회는 그 후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매년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태권도의 내분이 심각하고 뿌리가 깊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내분이 한국 태권도 협회의 내분과도 이어져 있어 봉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한다. 돌이켜 보면, 인도네시아 태권도 인사들은 제1회 "대사 배" 대회를 인도네시아 태권도 내부를 봉합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로서는 내분과 무관하게 "대사 배" 전국 대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별첨 사진: 칼라부통령)

(3) UI 대학에 한국학과 개설

내가 대사로 있는 동안, 4년제 한국어학과(Korean Language Department)가 인도네시아 최고의 명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UI)에 신설되었다. 그 전까지 3년제 수료과정(diploma)의 한국어과가 있었으나 이를 정규 학사과정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대사로서 이에 일조하였다는 사실을 아직도 보람 있게 생각한다.

한국어가 이 나라에서 크게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2003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법제화한 이후이다. 1993년부터 "산업연수" 명목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3~6 개월씩 받아들이다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법제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3년 계약(연장 가능)을 맺고 국내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장기 한국 체류가 가능하고 건강보험, 퇴직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동이 가능하였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높은 임금 수준, 의료 및 보험 혜택, 그리고 큰 규모의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다.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어 구사 능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노동 계약이 가능하였다. 고용주와 외국 근로자 사이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 한국어 붐이 크게 일어났다. 일 년에 한 두 번 보는 한국어 테스트의 경쟁률이 10 대 1이 넘었다.

인도네시아 경우 1,000명 정도 뽑는 검정 시험에 전국에서 15,000 명 이상이 응시하여 시험장이 아수라장이었다. 전국에 사설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각 대학마다 단기 한국어 반을 개설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에 일자리도 많아졌다. 이를 감안하여, UI 대학 인문대학장 Ida Sundari Husen(여)이 3년제 수료과정(diploma)을 4년제 한국학과로 승격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대학 당국도 한국학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학과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그 중에서도 일정 학위 이상을 보유한 교수 요원을 확보하고, 설립 후 5년간 교수 충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최대 난제였다.

이와 관련, Ida 학장은 자기 나라 문교부 및 대학 절차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으나, 한국 측이 한국어 교수 한 명을 5년 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국학과 설립 관련 서한)

May 12, 2006

Prof. dr. Usman Chatib Warsa
Rector of the University of Indonesia
Gedung Pusat Administrasi
Kampus UI
Depok 16424

Dear Professor Usman,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at the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y of Indonesia, Mr. Kim Seung-eui, Vice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reconfirmed the commitment in his visit to your University on May 10, 2006 that the Foundation will finance the provision of one lecturer to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I am also pleased to inform you that H.E.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 will visit Korea next month. This Embassy has put a high valu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in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y in Indonesia.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EPLU)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hares the view so that both this Embassy and DEPLU have agreed to recommend this issue to be reflected in the outcome document of the Summit Meeting between the two Presidents of Korea and Indonesia.

In this regard, it would be highly appreciated if you could expedite the procedure to establish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at the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y of Indonesia.

With my best regards,

Sincerely yours,

Lee Sun-jin

c.c. :
Prof. Dr. Ida Sundari Husen
Dean of the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y of Indonesia

KOICA 한국어 요원이 있었지만 “요건에 맞는 교수 요원” 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사 명의로 한국어 교수 요원을 5년간 충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편지를 보내달라는 이야기이다.

나는 이 학장의 열성에 감동하였고, 또한 인도네시아 최고의 명문대학에 한국학과를 설립한다는 명분에도 합당하여 적극 돕기로 하였다. 한국 외교부 본부 및 문교부에 건의한 결과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으로부터 5년 간 교수 요원 파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교수 요원 응모자가 없었다. 내가 10년 가까이 대학에서 생활을 해보니 이제야 그 사정을 알겠다. 젊은 교수가 해외로 장기 파견되면 자신의 교수 승급에 불리하도록 학사제도가 되어 있고, 특히 원로 교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대학의 문화이다. 결국 안식년 교수를 활용하여 6개월씩 교대로 교수 요원을 확보하기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나는 5년 간 교수 요원을 제공하겠다는 대사명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UI 대학 당국(및 문교부)의 절차가 느리게 진행되면서 자칫하면 2007년부터 뽑기로 한 학생충원이 1년 늦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왔다. 내가 대학 총장을 여러 차례 만나서 부탁하였다. 이 총장은 농촌 경제학 전공으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사관이 새마을 운동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제공하였기 때문에 한국학과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총장 힘만으로 역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2006.6 유도요노 대통령의 한국 방문(나중 연기)을 앞두고 총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로 부임하여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 UI 대학에 한국학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이 문제를 6월 한. 인니 양국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하기로 합의 하였다.” 는 요지의 서한이었다.

그 편지를 보낸 지 얼마 후 대학 측으로부터 최종 결정통보를 받았다. 어느 나라 관료들도 자기가 담당하는 이슈가 정상회담 의제라고 하면 긴장하기 마련이다.

The Rector of University of Indonesia
and
The Dean of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y of Indonesia
extend their highest appreciation to
His Excellency
Mr. Lee Sun-Jin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Undergraduate Program of Korean Studies,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y of Indonesia
Depok, August 16, 2006
Prof. dr. Usman Chatib Warsa, Ph.D., SpPK
Rector
Prof. Dr. Ida Sundari Husen
Dean

UI총장의 감사패

대사관의 건의 수준에 따라 의제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아마 이 나라 문교부와 UI 대학 당국은 이점을 잘 알고 이슈화되기 전에 서둘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UI 대학 한국학과는 첫 학기에 40 여명을 뽑았다.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학과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첫 신입생 전원이 장학금을 받았다. 내가 떠난 후에도 기업들의 장학금 후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졸업 후에도 한국 기업 취직이 용이한 만큼 한국학과는 인기 있는 과목이 될 수밖에 없었다.

UI 대학에 이어, 2008년 족자카르타에 있는 “가자마다” 대학교에도 한국학 학사 과정이 신설되었다. UI 대학과 “가자마다” 대학은 UI 와 함께 인도네시아 명문 대학의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다. 가자마다 대학은 특히 지방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많이 배출하여 지방 정부의 관리 중 이 대학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 28대 봉제협의회 박재한 회장 취임식

2017년 7월 20일, 재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이하 KOGA)는 '2018년 인니 경제전망' 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KARTIKA CHANDRA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신임회장 및 회장단 인선, 사무국조직 개편하는 총회에 이어 대우증권 심태웅팀장의 '2018년 인니경제전망', 김재훈대표의 '인도네시아 향후 세무방침', '임금정책', 김영미노무관의 'K-MOVE' 에 대한 설명, 안선근박사의 '인도네시아 문화와 예절' 등의 강의 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김종림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더욱 활기찬 봉제협의회가 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 새로운 시작하는 신임회장단에 기대가 크다" 고 말했다.

재인니 양영연회장은 축사에서 "봉제협의회는 더욱 화합하여 공동의 어려움에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며 앞으로도 한인단체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제 28대 KOGA의 박재한(PT.BUSANA PRIMA GLOBAL 대표) 신임회장은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다할 것이다. 정보공유와 상생관계 구축, 회원사 끼리 소통하고 의지하는 단체로서 회원사에게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 고 말하고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부탁했다.

이 날 모인 한인사회 각 단체장들과 한인회임원 및 봉제협의회 회원사대표들은 KOGA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했다.

실패는 활용의 대상이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 중소기업진흥공단(SBC)과 재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클럽에서 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성공하는 기업되기' 세미나가 7월 20일(목), Gran Melia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및 교민을 초청하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동포들에게 작은 투자와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길목에서 문화의 컨텐츠를 사업의 활성화로 접목시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경북대 이장우교수는 목표도 보이지 않는 극한적 불확실성의 사업 환경에서 자신의 강점을 탑재한 새로운 관점을 어떻게 사업으로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로 성능에 촛점을 맞추었던 과거에서 기본적 욕구 충족이 이뤄진 현재, 편리성 및 멋과 재미를 추구하는 바뀐 세상에서 살아남을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초 연결 지능사회의 수평적인 협업관계의 확산, 제조기업 외부역량 활용, 연계융합으로 네트워크화의 강점을 시사했다.

기계, 수송산업에서는 자동차, 조선에 비해 로봇, 기계분야 대응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이제 재빠른 추격자에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여는 선도자를 연구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창조적인 상생 생태계에서 가치 중심의 전략으로 실패를 나쁘게 규정하는 사회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원길(바이네르(주)) 대표가 '멋진 인생 만들기' 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기존의 성공의 정의부터 새롭게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경청하고 반응을 보임으로 변화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인도네시아, 2055년 세계 4위 경제대국 될까?”

글 :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저녁 8시 빌딩 숲 사이 한 쇼핑몰 내 헬스클럽 안은 한낮과 같다. 20여 대의 러닝머신과 고정자전거엔 빈자리가 거의 없다. 젊은이들이 거친 숨소리를 내쉬고 구슬땀을 흘리며 몸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영어학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영어공부 삼매경에 빠져있다. 나들이 나온 30대 부부는 어린 자녀들과 영어로 대화한다. 최근 자카르타의 모습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말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는 여객기에서 바라본 자카르타의 야경은 어두웠다. 단층주택의 창밖으로 새어 나온 희미한 백열등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꼬마전구 같이 깜빡거렸다. 자카르타 시내 한복판인 호텔인도네시아(HI) 주변조차도 해가 지면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 어두운 거리로 변했다. 이 호텔 뒤편에 있는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안쪽 공원의 바닷가로 맥주 한잔 마시러 가는 데 15분이면 충분할 만큼 저녁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줄어 한산했다. 대부분의 자카르타 식당들은 낮과 저녁 시간에 각각 2~3시간 정도 영업을 했다. 마치 침체된 사회주의국가와 같이 보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시동을 걸 당시인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직후 우리나라의 봉제, 신발과 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거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면서 현지 경제도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수출 강세에 힘입어 연평균 6~7%의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하지만 수출증가율이 1995년 26.6%에서 1996년 6.4%로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세계 경제 둔화 등 경기적인 요인 이외에도 중국과 베트남 등 저가 노동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경쟁국들의 부상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상실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다.

‘신질서’ (New Order) 체제라는 이름으로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한 수하르토 대통령이 1997년 금융・외환(IMF 경제위기) 위기의 쓰나미를 맞은 후, 이듬해인 1998년 5월 21일 민주화 바람에 밀려 하야했다. IMF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신질서 체제가 무너지고 개혁시대(Reformasi)를 맞은 인도네시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총체적인 대혼돈에 빠졌다.
수하르토가 실각한 이후 집권한 하비비, 압두라만 와힛(구스두르), 메가와띠 정권 등 과도기를 거쳐 2004년 대통령 직접선거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을 선출했다. 인도네시아는 유도요노 집권기에 중국의 경제성장에 편승해 원자재 수출이 급증하고, 5~6%대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G20 국가(주요 20개국)로 발돋움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체제와 1998년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된 수하르토 정권의 붕괴는 1945년 독립을 선언한 신생국인 인도네시아공화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다. 개혁시대를 맞아 어울리지 않을 법한 ‘민주주의와 이슬람의 양립’이라는 정체성 확립에 몸살을 앓았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온건・중도・강경 이슬람 등 다양한 모습이 드러났다. 수하르토 정권기에 이슬람에 대한 견제와 회유로 겉으로 들어나지 않았던 원리주의 이슬람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슬람의 정치세력화가 진행됐고 다양한 성향의 이슬람들은 각기 색깔을 갖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당시 가장 두드러진 사회변화 가운데 하나는 복장이다. 수하르토 정권기엔 흔치 않았던 여성들의 질밥(히잡) 착용이 새로운 트랜드로 나타났다. 심지어 눈만 내놓고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은 여성도 가끔 눈에 띈다.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산층이 두터워졌고 서구화의 물결도 거세게 밀려왔다.

자라(Zara)와 H&M 등 글로벌 패션브랜드들이 현지 시장에 확산되고, 세계 각지의 음식이 소개되면서 자카르타 거리는 여는 국제도시와 구별이 힘들 정도로 변모했다.

그 동안 잠재력만을 얘기해오던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국적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오는 2030년 독일과 영국 GDP 규모를 넘어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더 나아가 2055년이 되면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경제대국에 오를 것이라고 '유엔미래보고서'가 예측했다. 2055년엔 중국에 이어 인도, 미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경제대국이 된다는 전망이다.

다소 장밋빛 같은 전망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컨설팅회사인 마크플러스(MarkPlus)의 헤르마완 까르따자야 창업자 겸 회장의 미래 인도네시아 경영이론인 '인도네시아 와우'(Indonesia Wow)를 소개하겠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 세계 4위의 인구,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위치 등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잠룡(潛龍)이었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잠룡이 아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엔 교육 받은 젊은층,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 파워 그리고 미래 민주사회의 시민이 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네티즌의 빠른 확대와 성장은 미래의 인도네시아를 가능하게 한다.

종교적 주류인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종교와 많은 종족과 인종이 한 데 어우러진 진정한 다문화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다양성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강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의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할랄(Halal) 경제의 중심이 되고, 인도네시아의 화교 경제력은 경제대국인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 교류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낙관한다.

도시로.. 도시로

글: 한인뉴스 황윤홍 편집위원

경제 발전과 도시화

중앙통계청(BPS)이 지난 2010년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이 49.97% 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약 8만여 이르는 최하위 행정 단위인 Desa / Kelurahan 중 일정 기준에 달하는 [도시]로 인정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총인구로 나눈 수치이다 .

여기서 [도시] 의 기준은 도시 거주 인구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통계청이 정한 일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인구 밀도, 은행, 극장, 병원 수와 비농업인구 비율 그리고 제반 도시 시설 접근 용이성 등을 감안, 결정 되어 매 10년마다 실시 되는 인구조사에 반영시키고 있다.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은 1960년 14.8%, 1980년 30.9%, 2000년 42.4% 로 가장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50% 에 이르게 되었다. 도시 거주 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100만 이상 거주 도시 수는 모두 16개로 (자카르타는1개시로 산정) 2000년 대비 5개 도시가 증가 되었다.

지난 2010년 인구 조사에서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스마랑 4개 주요 도시와 수도권 위성 도시인 브까시, 땅그랑, 데뽁, 남땅그랑 을 포함한 총 8개 도시에 자와섬 이외 도시인 메단, 빨렘방, 마카사르가 100만 인구 거주 도시였는데 최근 6년간 반달람풍, 브까시 바루, 빠당, 바땀과 보고르 5개 도시가 100만 인구 거주 도시로 추가 등극하였다.

경제 성장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자연적 추세로 한국의 도시 인구 비율은 거의 90%이고 주요 선진국의 평균 비율도 70-80% 에 이르고있다. 인도네시아 도시화 진전은 당분간 급속히 지속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한국의 도시화 전수

자타르타도 내년 아시안게임에 맞춰 도시 재개발 정비 사업이 한창이다. 특히 교통 체증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지하철 1호선 (2019년 개통) 건설, 자카르타- 반둥 초고속 철도 (2019년 5월 목표), 자카르타 - 수라바야 철도 개량/고속화 사업, 수마트라 횡단 고속 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현재 시내 곳곳에서 공사중인 고가 차도, 도로 확장, 외부 순환로 건설과 찔리웅 강 및 하천 정비와 따나아방 노점상 정리, 시내 빈민촌 강제 철거와 저가 서민 주택 건설 등, 이러한 변화들은 40여 년 전인 1970년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어 왔던 각종 개발 사업들이 거의 그대로 현재 인도네시아에 접목 되고 있어 감회가 깊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자카르타 경전철 1호선(LRT/ 2018년 6월 아시안게임 전 개통)은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건설이 한참 진행 중인데 열차, 역사, 터널, 신호시스템 등 모든 공정이 한국 기술진에 의해 투입 되는 '종합패키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그간 자카르타 지하철, 반둥 초고속열차, 수라바야 기존 철도망 개선 프로젝트 등에 전혀 참여를 못한 한국의 위상을 그나마 높여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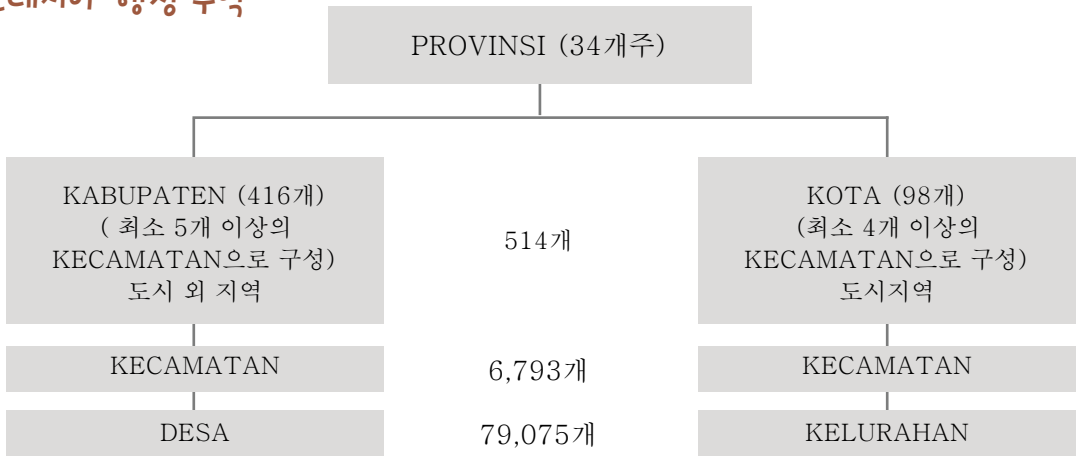
새로운 소비 형태 및 상권 변화

수일 전 보도에 따르면 2년 후 개통 예정인 자카르타 지하철 1호선 14개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상권과 주거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여 이미 인근 지가가 급상승하고 있고, 수도권 확대에 따른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쇼핑/오락시설을 갖춘 대형몰이 오는 2020년까지 총 27개가 추가로 건설되는 등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 수도권 광역 대도시권의 확대 현상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함께 소비 형태도 급속히 변화될 것 이라 예측했다.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4대 광역 대도시권으로 자카르타와 주변 5개 Kota와 3개 Kabupaten을 포함하는 JABODETABEK 광역권은 이미 거주 인구가 3천만 명을 넘어 세계 5대 광역도시권으로 발전되었으며, 그 외 수라바야 광역권 (920만 명) 반둥라야 광역권 (800만 명) 메단광역권 (420만 명) 등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발생한 현지의 각종 도시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지난 40여 년간 한국이 경험한 소중한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 적극 전수함을 물론이고 이런 기회가 우리 진출 기업체들에 좋은 사업으로 연결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인도네시아 행정 구역



이외 3개 특별 행정자치지구가 있음(2012년/중앙통계청)

자카르타 상수도사업본부에 경주시가 개발한 급속 수처리시설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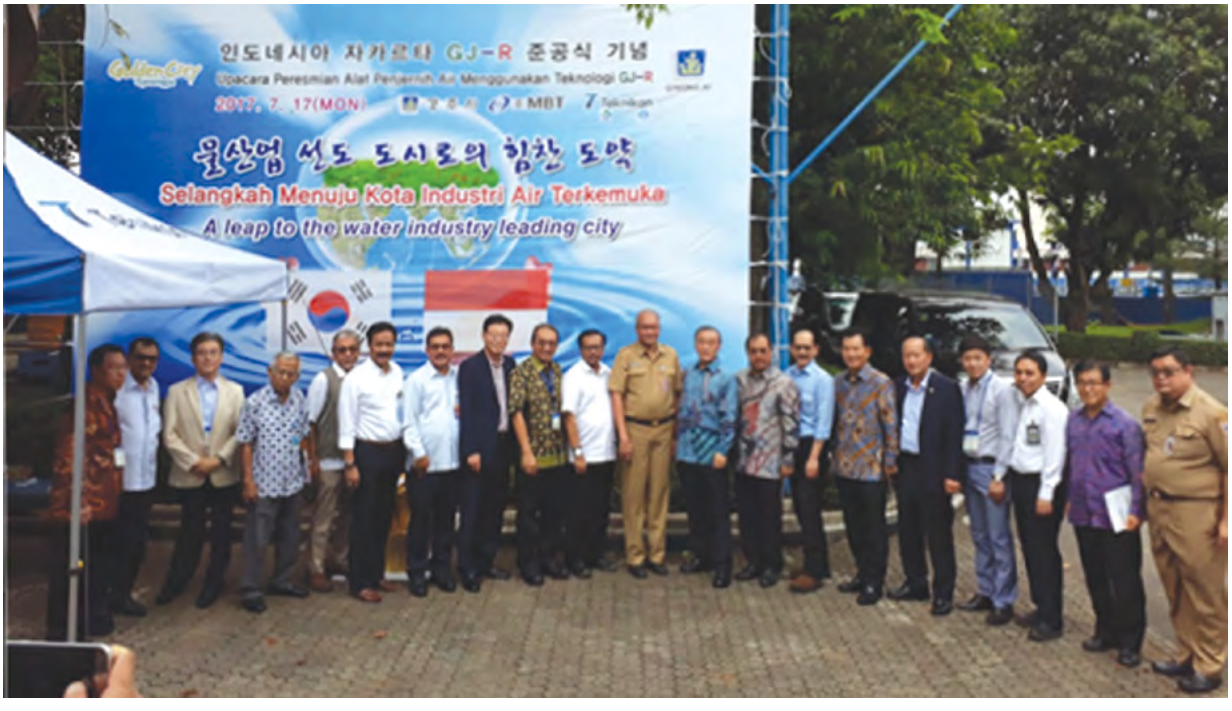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경상북도 경주시가 개발한 급속 수처리 시설이 들어섰다. 경주시는 올해 5월 자카르타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동식 음용수 공급 장치를 설치하고, 그동안 시운전과 기술 교육, 수질 분석을 거쳐 지난 7월 17일 최양식 경주시장과 오스와르 자카르타 부지사를 비롯한 양국 자치단체 상수도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경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5여년간 연구를 거듭하여 독자적인 급속 수처리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중 오염 물질을 고속 응집장치와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해 분리한 뒤 오존 처리를 통해 깨끗한 음용수를 간편하게 생산하게 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러한 이동식 컨테이너 급속 수처리 장치에는 비상 발전기도 갖춰 전기가 없는 오지에서도 상시 가동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와 같은 이동식 컨테이너 수처리 장치가 보급되면 섬과 밀림이 많은 이 지역에 일일 대당 100톤 가량의 물을 처리해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포스코 현지 공장에도 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에서는 오는 9월 20~23일까지 70개국 15,000명이 참가하는 '2017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KIWW)' 행사와 같은 기간 아시아 정부, 국제기구 등 26개국 115여개 회원기관이 참가하는 '아시아 국제 물주간 (Asia International Water Week, AIWW)' 행사도 동시에 개최된다.

자카르타 경상북도사무소 권기일



KOICA, 인도네시아 제5차 석사연수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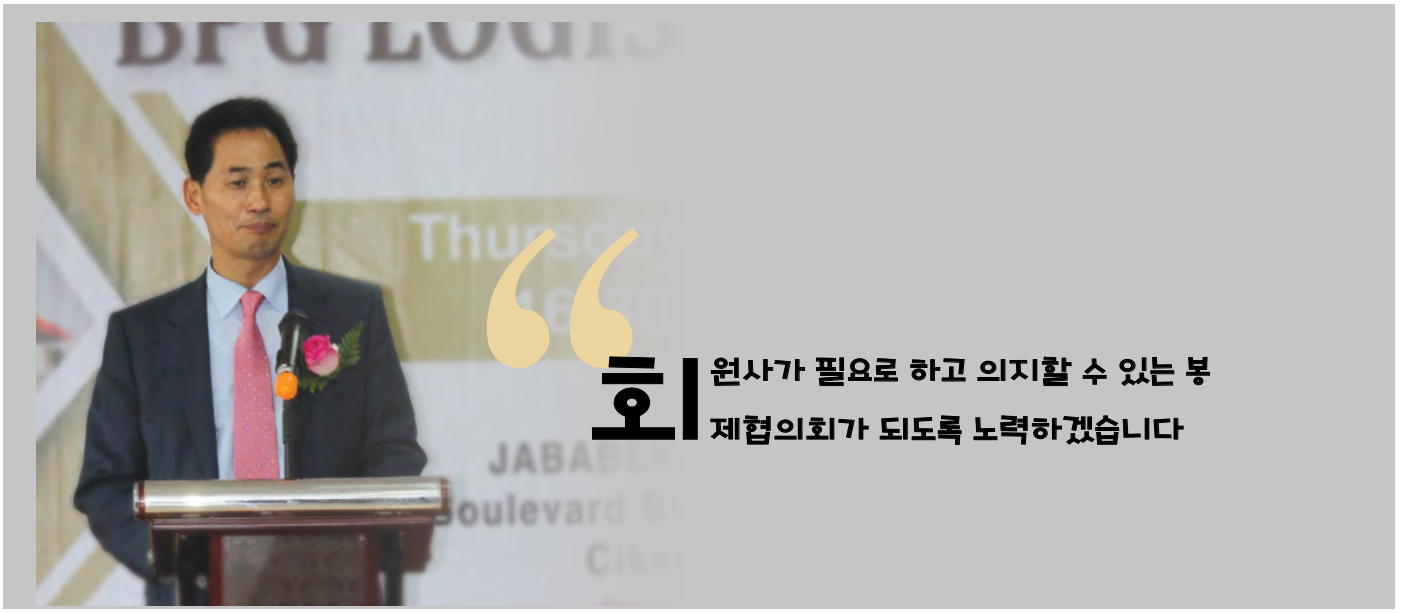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지난 7월 25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웨스틴 호텔에서 제5차 석사연수 성과공유 워크숍 및 문화활동 행사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는 KOICA 설경훈 글로벌협력 이사, 인도네시아 오기윤 사무소장 및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수랏 인드리자르소(내각사무처 복지담당 차관, 총동창회장), 빠를로지(남남협력국장) 및 나스루딘 조코 수르조노(재무부 세관 및 소비 정책 담당 부국장, 1기 석사 연수생)을 비롯하여 부처별 공무원 및 석사연수생,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졸업 예정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실시되었다.

"STEP(Start to Encourage the Potential) : Sharing Knowledge, Experience and Culture" 를 주제로 진행된 금번 워크숍에서는 KOICA 석사연수 프로그램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홍보하고, 석사과정 귀국 연수생들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KOICA 석사과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석사동창회(KOSA, Korea Scholarship Association)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행사 준비 및 참여를 통해, KOICA 연수 동창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친한 네크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KOICA 석사동창생의 지역 봉사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niversity of Indonesia) 졸업예정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동창생 주도의 진로상담 및 안내 토크쇼를 개최하는 등 KOICA 동창생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연수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KOICA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으며, 연수생들이 동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습득한 지식 및 성과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동 워크숍 이외에도 총동창회, 수라바야 지역동창회, 여성동창회 등의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제협의회 제 28대 박재한 회장



1. 7월 20일 봉제협의회(이하 KOGA)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한 말씀해주세요

축하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운시기에 제 28 대 봉제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저의 가슴 속에는 영예와 기쁨에 앞서 책무의 막중함과 소명의 엄중함으로 인한 책임감이 무겁게 자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0 여개 회원사수를 갖고 있는데 회원사 모두에게 관심과 인정받는 협회로 이끌어 가야겠다는 의지 또한 가득합니다.

2. KOGA의 활동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협회를 통해 각 회원사가 편하고 안전한 사업 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과 카톡을 활용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여 350여개 회원사의 성공적인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현안문제를 더듬어 보기도 하고 깊이있게 파고 들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을 주며 회장단, 상임사, 사무국 모임에서 안건 수립 협의를 하여 상생하는 재 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의회가 될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골프 대회를 개최하여 회원사의 단합과 타협회 와의 정보 교류및 친목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3. 새로 단장한 KOGA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제게 맡겨진 코가 회장 임기 동안 350여개 회원사와 함께 아래 4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알차고 힘찬 협의회로 끌어 가겠습니다 .

첫번째로, 봉제 협의회가 회원사 에 관심 받는 협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사에게 꼭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서 회원사의 성공적인 사업 계획을 위해 정확하고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회원사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회원사간 내부 협력, 주재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바이어 및 협력 업체 상생관계 구축, 그리고 성공적인 모범 비즈니스 사례 연구 개발을 하여 회원사와 공유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회원사의 버팀목이 되는 협회가 되고자 합니다. 회원사가 동고동락하며 서로 의지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봉제 환경 속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회원사가 소속된 KOGA가 타 협회에도 모범이 되는 협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타 협회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대사관 , 한인회 및 코참 등 기타 모든 협회와 상호 협조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이 보다 편하고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중추적 역할이 되는 협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향후 KOGA 가 하려는 계획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무국에서는 회원사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해 기존 이루워지는 세미나및 포럼등에 빠짐없이 참여, 정보 수집을 하여 회원사에게 정보 제공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무국, 상임사, 회장단 모임을 갖고 그때 그때의 현안들에 대한 전문가 초청 조언과 강연을 통해 대책논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단과 사무국이 회원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회원사와 만남을 통해 회원사와 소통 화합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박재한 회장님의 개인적인 인도네시아 정착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봉제를 막 시작할 무렵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산업 인력에는 많은 의식구조 변화가 생겼고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려 하는 근로자 감소로 봉제 산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회사에서 대책을 찾은 것이 싼 인건비와 풍부한 인력이 있는 동남아로 공장 이전을 하는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무렵 인도네시아로 오게 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지금까지 26여년 봉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아이템엔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 마다 제가 천직으로 생각 하는 봉제와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부터는 호텔 사업을 병행 하게 되었으며 올해는 유통 물류 산업에도 뛰어 들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 하여야 좋은 결과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사업체 성장과 더불어 올바르고 유능한 후배 및 전문가 양성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쌓아온 업무를 이론과 학설에 접목을 시켜 유익한 업무 학습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대학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섬유 봉제 관련 박사 논문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에 학위를 받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7. 회원사와 한인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인도네시아에는 거의 전 아이템에 대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봉제 협의회가 가장 많은 회원수(350 여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인 고용 인원(50만명 추산)또한 최대이며 봉제 회원사가 창출 하는 수출 금액(40억불 추산)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가 회원사와 관련된 한인 동포수도 가장 많고 최저 임금 높낮이 관계로 지방을 포함 여기저기 뚝뚝 멀리 떨어져 있어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세미나및 행사 참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여러 매체를 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간혹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 나는 것도 사실인데 개인보다는 협회를 통하여 목소리를 내고 풀어 나가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가가 그런 쪽에 한몫을 하려 하니 코가에 많은 관심과 협의 바랍니다.
코가 회원사 및 가족들이 행복하면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 또한 밝고 행복하리라 확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PT. BPG LOGISTIC CENTRE 개소식

BPG 로지스틱 센터는 ...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발전해가는 유통산업 구조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도 급변화 하는 유통 산업에서 물류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로지스틱 센터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롯데의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설계, 신뢰와 기술이 뛰어난 삼한 기업에서 건설을 하였습니다. 한국 기업인 롯데, 삼한, 비피지가 협력하여 오늘이 거대하고 훌륭한 물류센터 를 준공하게 되어 더 더욱 기쁘게 생각 합니다.

서부 JAVA주 Cikarang JABABEKA 3공단내의 200Ha의 내륙화물기지인 DRY PORT지역 내에 저희 BPG가 이미 8Ha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그 중 1차 5Ha부지에 연건평 3Ha 건조 냉장 냉동 복합 물류센타 건립 완료하였으며, 2차 3Ha부지에 1.5Ha 물류창고건립을 목표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위치선정에 있어 여기 DRY PORT단지는 국제 수출 및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유통을 위한 one stop하역 및 물류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카르타 외곽 동쪽인 브카시-찌캄백 공업지대및 내륙 JAVA섬 전체를 고속도로와 철도를 통해 접근이 용이한 위치인 점을 감안하여 미래의 물류사업에 아주 적합한 JAVA 섬의 혈관과 같은 위치라 여겨 2016년 4월 여기 JABABEKA 3공단 DRY PORT 공업단지에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2016년 5월 국내 굴지의 건설 회사인 주식회사 삼환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삼환기업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동,남미,동남아까지 진출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타이어, 락앤락 물류창고, 주식회사 태광공장 등을 건설한 풍부한 인도네시아 건설경험을 가진 업체입니다.

2016년 6월 28일 착공하여 2017년 5월에 완공되어 총 11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차 물류센터의 투자규모는 현재 2천4백만불이 투입되었습니다. 문류센터 규모는 5Ha의 부지위에 건조센터 2.26Ha, 냉장냉동창고 2,880m2와 기타 부속건물등 총 연건평3ha로 1개동 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단일 1개동 규모로는 거의 인도네시아에서 최대규모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2017년 7월 한국 최대의 물류업체인 LOTTE LOGISTIC INDONESIA가 입주 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국유학생 만남의 날』개최

2017.7.8. 14:00~18:30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그란멜리아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국제학생회(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 주최로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국유학생 만남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 국제학생회: 대한민국 외교부 등록 비영리사단법인(이사장: 이태식 전 주미대사)으로 유학생 지원 및 민간 교류활동을 전개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인도네시아 학생 60여명을 포함하여 약 100여명의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공관의 선발 및 추천을 거쳐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후, 정부기관 및 UI 등 인도네시아 유수 교육기관에서 활약중인 동문 20여명도 같이 참석하여 다양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다.

행사는 주최측의 환영사와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의 축사에 이어 참석자의 유학생활 소개 및 멘토토크, 그리고 K-pop 컨테스트와 환영만찬까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조태영 대사는 축사를 통해 최근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MIKTA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시점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유학 경험이 있는 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양국의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인도네시아 공립고등학교 제2외국어 한국어채택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채택으로 인우회와 MOU 체결

인도네시아 땅그랑소재 공립고등학교인 SMK NEGERI 1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한인 자생단체인 인우회(회장 : 신동수)와 제 2외국어 한글채택을 최소 5년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속적인 한글교육을 위한 1차적인 계약으로 향후 5년간 한글교육을 실시해 한글교육의 효과와 학생들의 관심도, 교육 후 진학 및 취업성과에 따라 한글교육을 장기적으로 정규 교과과목에 정착시키기 위한 협약이다.

다가오는 17일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당장 필요한 교사문제와 교과서 문제 등 한글교육을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사관, 코이카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학기를 맞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교과서는 대사관 지원으로 200권, 인우회 예산으로 350권을 준비 해 놓은 상황이고 교사는 UNAS 대학의 한글학과를 졸업한 인도네시아인 교사를 우선 배정해 놓은 상황이며 정식교사의 지원은 세종학당을 통해 차기 학기에 지원 될 계획이다.

한글 교육은 당해년도 1학년 수업을 진행하며 차기년도 1,2학년, 다음해 1,2,3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며 한 학년 학생 수는 14학급 약 504명으로 전교생 1500여명의 학생이 한글수업을 받게 되었다.

이번 공립학교 제2외국어 한글 채택은 약 10여년간 방과 후 한글수업을 인우회 자체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해 왔고 매 3개월마다 한국어 수업 우수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과 매년 한글반 학생과 교사 100여명을 초대해 한글교육을 받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해 온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한글보급의 사례를 타 학교에 빠르게 전파 될 수 있는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그리고 한글의 저변확대와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한글수업의 흥미를 더해 주기 위한 특강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인우회 회원가입 통해 함께 뜻있는 활동을 해 나가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인우회 0811-810-731
cheyinji@hanmail.net

JIS

JIS에서 마지막 여름 방학

(학생기자 JIS 김지민)

매년 학년이 바뀔 때마다 학생들은 끝, 그리고 시작선에 서있다. 학생들은 많은 과제들과 시험들로 인해 지쳐 쉬고싶은 마음이 있으며, 방학 후엔 더 높은 학년이 되어 더욱 어려운 학업 과정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걱정 섞인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겐 다릅니다. 학생들에겐 이번 여름 방학이 마지막이며, 이 다음 여름은 방학이 아닌 모든 학교생활이 끝난 여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려운 11학년 과정을 막 끝내어 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내년에 드디어 졸업이며 이번 방학이 입시 전의 마지막 준비라는 생각에 학생들은 마음 편히 놀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참고 바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현재 특례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11학년 학업을 복습하고 12학년 과정을 미리 예습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에 필요한 TOEFL, TOPIK, 등 여러가지 시험들과 추가적인 봉사 와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거리는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바쁘게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걸어다닙니다.

독서실에 앉아 있으면 마치 먼저 전등을 끄면 지는 것 처럼 꺼지는 전등이 없으며, 자리에 앉아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름방학과 달리, 마지막인 이번 여름방학에는 학생들은 동사무소를 찾아 첫 주민 등록증을 만듭니다. 주민 등록증은 고등학생들에게 주민 등록증은 어른이 되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첫 증명 사진에 잘나오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하고, 까만 손도장을 찍고, 드디어 신분을 증명해주는 카드를 받습니다.

마지막을 앞둔 힘든 과정을 견디는 학생들을 위로해주는건 가족들과 친구들입니다. 마지막 여름방학이고 이제 고등학교가 끝나면 더이상 학교에서 당연하듯 친구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힘든 과정을 같이하는 학교 친구들, 그리고 학원에서 만난 자신과 같은 과정을 하는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풉니다. 또, 그동안 멀어졌었던 사촌들과 친척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다소 짧은 가족과의 여행도 다닙니다.

졸업하면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마음과, 드디어 끝났다는 해방감을 누릴 수 있다는 행복한 상상에 학생들은 마지막 여름 방학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 학년이라는 시작선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학생들은 최대한 보람 있게 마지막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들고,
다른 손에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들고,
두 발은 지금 이 순간에 굳게 디딜 것
–티베트 속담–

@Sanur Bali / ©2017 Cho Hyun Young (ajuma868.wixsite.com/manzizak)

제 10기 옥타 인도네시아 통합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개최

2017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10번째 무역스쿨이 스나얀 센츄리 파크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배응식 옥타 자카르타 지회장은 폐회식에서 미래를 짊어지는 차세대에 격려를 보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번 무역스쿨은 항공업계 최연소 대표를 역임한 전 아담에어 대표 아담 수헤르만을 비롯 KEB 하나은행 이화수 행장, 무궁화 유통 그룹 및 월드 옥타 세계 회장을 역임한 김우재 명예회장, 김용수 영화감독, UIN 안선근 교수, SK 홀딩스 인도네시아 손동근 법인장, 삼성전자 이강현 부사장, KMK그룹 및 대한상공회의소 송창근 회장 그리고 대사관 이명호 총영사 겸 공사의 특별한 강연으로 1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원영태 차세대 대표는 "무역스쿨 행사는 끝났지만 여운을 이어받아 8월5, 6일 보고르로 워크샵과 일정이 맞지 않아 모시지 못한 훌륭한 강사님들의 특강 그리고 기업체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조정중" 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수료식이 끝난 후 만찬에는 대사관 이명호 총영사, 한인회 양영연 회장, 월드옥타 김우재 명예회장, 대한체육회 최병우 회장 및 인니 국회 나시르 의원 등 각계 VIP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옥타 무역스쿨은 매년 40세 이하 차세대 50명을 선발하여 초청강연, 조별과제 그리고 네트워킹 등을 주최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한인 단체이다.

옥타 차세대 회원가입 및 기타 문의: oktajakarta@gmail.com

2017 전라남도 무역사절단, 자카르타 에서 상담회 개최

최근 세계 최대 식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할랄 시장에 선제 공세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도청에서 7.23~7.30, 8일간 도내 8개 할랄 인증 기업 선발하여, 동남아 3개국(인니, 말레이, 싱가폴) 무역사절단 파견하였다.

2017년 7월 24일 자카르타 Hotel Gran Melia에서 상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할랄 식품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 도내 할랄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제공: 전남도청 박철영주무관)

통일부, ASEAN 지역 대북정책 설명회

2017년 7월 26일, 자카르타 소재 음식점에서 통일부 성기영 정책 협력관과 그 일행은 ASEAN지역 중 자카르타지역 관련 단체회원과 동포들 대상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재외동포들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현지 외국인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에도 잘 대응함으로 재외동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의 달라진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등, 북한의 예사롭지 않은 군사행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질의 및 의견들이 오갔다. 우선적으로 북과의 막힌 채널을 여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기반 강화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베를린 선언의 의미를 통해 조급하고 인위적인 정책을 벗어나 좀 더 근원적 해결에 의지를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수까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 수까르노편

독립선언 기념비 (Proclamation Monument)

인도네시아 현대사는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를 빼고는 거론할 수 없다. 그에 대한 많은 책자와 영화들이 나왔고 장녀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가 1998년 수하르토가 하야한 후 짧지 않았던 과도기에 하비비 대통령 다음 압두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의 자리를 승계했을 때 독재자로 분류되는 수까르노의 딸이었기에 대체로 같은 계통이었던 박정희 전대통령의 장녀와도 여러 면에서 비교되어 조명된 바 있었다.

수까르노는 1901년 6월 6일 수라바야에서 출생했고 일본이 패망하던 1945년부터 1967년까지 23년간 대통령을 역임했다. 독재기간이란 측면에서 20년을 채운 박정희를 넘어섰지만 그의 후임 수하르토가 철권독재 32년으로 수까르노의 기록을 간단히 즈려밟았다.

수까르노는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지도자들 중 단연 발군이었므르로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집중적 탄압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아 일본군이 진주할 때까지 10년 넘게 감옥생활을 했다.

그는 동료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민중의 노력을 모아 일본의 전쟁행위를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부역했고 일본이 패망하자 1945년 8월 17일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모하마드 하타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그와 하타는 각각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취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네덜란드가 동인도제도의 식민지를 되찾으러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자 국민과 민족지도자들을 규합해 저항하며 군사적,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끝에 1949년 마침내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쟁취하기에 이른다.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영민하고 민첩했으므로 일본패망과 독립전쟁, 그리고 수많은 반란과 분쟁으로 이어지던 격랑의 시대에 정치적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았다.

혼돈의 의회민주주의 시기에 수까르노는 1957년 '교도민주주의'라 칭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정치적 불안과 반란들을 종식시켰지만 1960년대 초엔 군과 이슬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공산당(PKI)를 비호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좌경화시켰고 소련과 중국의 후원을 받으며 '반제국주의'의 기치 아래 일단의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러나 1965년 '9월 30일 쿠데타'로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철저히 와해되고 수까르노의 정치생명은 치명상을 입는다. 그는 새로운 독재가 수하르토에게 등 떠밀려 1967년 마침내 하야하게 된다. 독립과 건국의 영웅이었던 수까르노는 남은 인생을 가혹한 연금상태로 지내다가 1970년 6월 21일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뒷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롤러코스터 같은 그의 인생경로를 따라가 보는 것은 격동의 인도네시아 현대사를 되짚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에 대한 자료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수까르노와 당시 시대상을 비교적 가벼운 터치로 조명해 보려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그의 이름에 대한 오해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의 이름을 아흐맛 수까르노(Achmad Sukarno)라고도 표기하기도 하지만 수하르토 대통령의 이름이 그냥 '수하르토'인 것처럼 수까르노 대통령의 이름 역시 '수까르노'일 뿐인데 당시 그런 식의 동양이름에 익숙지 않던 유럽독자들을 위해 한 영국인 기자가 임의로 작명해 마치 성과 이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붙여 놓았던 것이 아직도 이런저런 문서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아흐맛 수까르노'가 아니라 그냥 '수까르노'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수까르노의 아버지는 자바의 초등학교 교사이사 귀족출신인 라덴 수끄미 소스로디하르죠였고 어머니는 발리의 브라만 계급으로 불레렝 지역출신인 아유 뇨만 라이였다. 수까르노는 1901년 6월 6일 네덜란드령 동인도 동부자바 수라바야의 빤

수까르노, 1916 (수라바야의 HBS 학교 재학당시)

데안로 4가 40번지 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생사를 오가는 중병을 앓으면서 자바의 전통에 따라 이름을 '수까르노'로 개명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 중병을 앓게 했던 역신이 다시는 그 사람을 찾아 돌아올 수 없도록 한다는 민간신앙이 수까르노라는 이름을 낳게 한 것이다.

1916년 그의 아버지는 그를 수라바야 소재의 네덜란드 대입준비학교에 보냈는데 거기서 수까르노는 민족주의자이자 이슬람연합인 '사레깟이슬람'을 세운 쪼끄로아미노토를 만나게 된다. 그는 수까르노가 묵고 있던 하숙집의 주인이기도 했다. 자카르타의 꾸닝안 도로를 북쪽으로 달려 그 끝의 다리를 건너면 나타나는 도로명인 호스 쪼끄로아미노토는 그를 기념한 도로이다.

1920년 그는 쪼끄로아미노토의 딸인 시티와 결혼했고 1921년 반둥에 소재한 테크니쉐 호게스쿨(지금의 반둥공대)에 진학해 토목과 건축을 공부했다. 반둥공대 시절 수까르노는 그곳 하숙집 주인인 사누시의 아내 잉깃 가르나시와 로맨스에 빠지게 되는데 당시 잉깃은 수까르노보다 13살 연상의 유부녀였다. 훗날 국가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는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내에 대한 책임만은 참으로 가볍게 여긴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1923년 3월, 수까르노는 시티 우타리와 이혼하고 잉깃과 결혼하는데 잉깃은 전남편과 헤어진 후였다. 그 후 20년 가까이 유지된 잉깃과의 결혼생활도 결국 파국을 맞고 수까르노는 파트마와티와 재혼하게 된다. 수까르노의 결혼 행진곡은 그 후에도 계속 울려 퍼져 평생 아홉 번의

하자 우미르 사이(HOS) 쪼끄로아미노토

파트마와티

정식결혼을 하면서 일부일처제에 묶여살기보다는 이슬람 전통의 일부다처제를 보다 자유분방하게 해석하며 살았지만 파트마와티는 메가와띠 전대통령의 어머니로 수까르노의 많은 부인들 중 가장 정통성 있는 '정실'로 인정받는 여인이다. 하지만 결혼기간으로만 본다면 잉깃 가르나시가 가장 길었고 국제사회의 영부인으로서는 네 번째 부인이 되는 하르띠니(Hartini)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도 사실이다.

수까르노는 1926년 5월 25일 학위를 받고 반둥공대를 졸업한 후 그해 7월 대학 친구인 안와리와 함께 반둥에서 '수까르노와 안와리'라는 설계 및 시공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지금도 반둥시내에 있는 쁘레앙어 호텔의 건물보수공사에서 저명한 네덜란드 건축가 찰스 프로스퍼 볼프 슈마커의 조수로도 일했는데 그렇게 실무를 익힌 후 오늘날 반둥의 가똣 수브로또 거리, 빨라사리 거리, 데위사르티카 거리 등에 많은 민간주택들을 설계했다. 그가 독립운동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훌륭한 건축사업가로서 이름을 남겼을 지도 모른다. 수까르노는 훗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건축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자카르타의 독립선언기념비, 거둥뿔라 건물 주변 지역, 스마랑의 청년기념비, 말랑의 광장기념탑, 수라바야의 영웅기념비 등 랜드마크들은 물론 중부 깔리만탄의 빨랑까라야 신도시 설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잘 교육받은 엘리트였고 특히 언어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고향방언인 자바어를 비롯해 순다어, 발리어 등의 인도네시아 주요 방언들은 물론, 특별히 네덜란드어에 능했고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일본어 등을 큰 어려움 없이 구사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한 번 본 것을 사진처럼 명료하게 기억하는 놀라운 기억력과 남다른 두뇌회전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는 건축뿐 아니라 물론 정치에서도 '극히 현대적'이었다. 그는 자바의 전통 봉건주의를 퇴행적 행태라 여겨 경멸했고 그것이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게 짓밟혀 착취당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 서구열강의 제국주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악행'이었고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빈곤과 낙후한 교육문제는 네덜란드의 착취로 인한 것이라고 믿었다. 훗날 수까르노는 인민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매일 입는 의복은 물론 자카르타의 도시계획 등에도 사회주의적 정치철학에 입각한 자기 생각을 오롯이 담아내려 했다. 수까르노가 추구했던 '현대적'인 것들은 특정 민족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그 방식이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동시에 반제국주의적인 것을 의미했다.

광장기념비(Alun Alun Monument in Malang)

다음호에 계속

이색자격증에 도전하세요!

여름방학을 이용해 취득하면 요긴할 이색 자격증 4가지를 소개합니다.

#. 꽃차 소믈리에

꽃이 가진 특성과 제다법을 익히고 꽃차의 색, 향, 맛을 평가하는 민간자격증, 꽃차 소믈리에!
시험은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 1~3개월이면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하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특히 꽃이나 차를 좋아하거나 음료와 관련된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꽤 요긴할 것 같습니다.

#. 반려동물 관리사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공부해야 취득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 반려동물 관리사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사회화 교육이나 응급치료, 동물 장례 절차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올여름 우리 집 냥냥이와 멍멍이를 위해 도전하는 건 어떨까요?

#. 결혼 상담사

민간 자격증인 결혼 상담사는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는 자격증입니다.
1차 필기시험 후 2차 직무교육이 있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니 준비물로 열정만 있다면 가능.
물론 사람과 사람을 맺어준다는 점에서 보람도 있습니다.

#. 스포츠체형관리사

스포츠체형관리사는 운동 및 식이요법으로 고객의 체중을 관리해주는 민간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기에 합격하면 동영상으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방학 때 쉽고 편하게 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 요즘 같은 때 가장 필요한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찾아보면 개인정보관리사, 발효효소관리사 등 더 이색적인 자격증도 많습니다.

김용욱의
경제이야기

인도네시아 신권 화폐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

글: 우리소다라은행 김용욱상무

인도네시아의 경우 작년 12월 19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서는 루피아 신권 화폐 유통을 선언하여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신권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권 화폐는 자외선으로 형광을 발하는 잉크 사용과 잠상, 요판기술, 빛에 의해 색상이 변화는 인쇄기술 등 최첨단 10개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현 지폐에 비해 위조방지기능을 강화하였는데요, 지폐 7종과 동전 4종으로 총 11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흔히들 화폐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그 국가의 역사와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즉 화폐 속에 나타나는 인물을 통해 그 국가가 현재 시점에서 그 사회의 역사와 문명을 바라보는 흥미진진한 안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폐 속에는 대부분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나 역사,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들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번 신권 화폐를 통해 시대에 따라 교체되고 바뀌는 인도네시아의 정서와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상 생활속에서 매일 접하지만 어떤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달에는 인도네시아 신규 화폐속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만 루피아

(앞)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왼쪽)과
하타 초대 부통령의 초상

뒤) 앙그렉 꽃 라자 암빳의 경관,
브따위족의 따리또벵(가면춤)을 추는 여인

수카르노(Sukarno)
– 1901~1970 (수라비야~자카르타), 독립 운동가이며 정치가
– 인도네시아 독립 운동 후 초대 대통령이 되었음

모하마드 하타 (Mohammad Hatta)
– 1902~1980 (~자카르타), 독립 운동가이며 정치가, 경제학자
– 1945년 독립 후 인도네시아 초대 부통령, 후에 총리와 외무장관 겸임

2. 5만 루피아

(앞) Djuanda Kartawidjaja

(뒤) 레공춤, 코모고섬 경관, 즈뿐 발리 꽃

Djuanda Kartawidjaja (주안다 까르따위자야)
- 1911~1963 (타시크말라야~자카르타)
- 인도네시아의 정치가 및 인도네시아 제 10대 수상
- 순다족 출신으로 독립 전에는 마지막 총리를, 독립 후에는 재무부 장관을 역임함

3. 2만 루피아

(앞) Sam Ratulangi

(뒤) 공춤, 드라완 자연 경관, 검은 앙그렉 꽃

Sam Ratulangi(삼 라뚤랑이)
- 1890 ~ 1949 (~ 자카르타), 초대 술라웨시 주지사, 정치인이자 언론인, 교사.
- 인도네시아연합학자의 창립 멤버로서 인도네시아 독립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됨

4. 1만 루피아

(앞) Frans Kaisiepo

(뒤) Tari pakarena(춤), Taman Nasional Wakatobi (국립공원), Cempaka hutan kasar(꽃)

Frans Kaisiepo(프란스 카이세포)

- 1921~1979(Biak~자야푸라), 제4대 서부 이리안 주지사
- 파푸아의 대표로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형성이 논의 된 Malino 회의에 참여

5. 5천 루피아

(앞) Dr. KH. Idham Chalid

(뒤) Tari Gambyong(춤)
Pemandangan Alam Gunung Bromo(자연경관)
Bunga Sedap Malam(꽃)

Dr. KH. Idham Chalid(이담 칼리드)

- 1921~2010 (Tanah Bumbu Regency ~ 자카르타), 정치인
- Ali Sastroamidjojo Ⅱ와 Djuanda 내각 부총리로 재직.
- Ketua Tanfidziyah Nahdlatul Ulama의 회장 역임

6. 2천 루피아

(앞) Mohammad Hoesni Thamrin

(뒤) Tari Piring(춤)
Pemandangan Alam Ngarai Sianok(자연경관)
Bunga Jeumpa(꽃)

Mohammad Hoesni Thamrin (모하마드 후스니 탐린)
- 1894~1941(자카르타~자카르타)
- 1927년 인민위원회 임명된 독립운동가, 국가 영웅
- 인도네시아 국가 운동의 단계인 PNI의 설립자 및 주요 지도자

7. 1천 루피아

(앞) Tjut Meutia

(뒤) Tari Tifa(춤)
Pemandangan Alam Banda Naira(자연경관)
Bunga Anggrek Larat(꽃)

Tjut Meutia (쭛 무띠아)
- 1870~1910 (아체 술탄국~아체 주), 아체 지역의 인도네시아의 국민 영웅
- 그녀의 남편 Teuku Tjik Tunong와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전투
- 남편의 죽음 후 1910년 9월 26일, 죽을 때까지 군단을 이끌고 전투

신권 화폐는 대부분 명절이나 특별한 날 많이 찾게 됩니다. 신권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종종 많은 분들이 신권 화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권 화폐를 발행하는 데는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낡은 화폐들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신권 화폐를 받을 때의 즐거움을 생각하면 우리모두가 일상생활에 있어 조금은 더 깨끗하게 화폐를 사용하는 습관도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두테르테 풍선효과?…" 필리핀 마약, 인니로 이동"

필리핀이 '마약과의 유혈전쟁' 을 벌이면서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 유입되는 마약류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26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BNN) 부디 와세소(일명 부와스) 청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필리핀에 존재하던 시장이 인도네시아로 옮겨오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 용의자 사살) 조치 이후 인도네시아로 관련 범죄자와 마약류의 대이동 현상이 나타났다" 고 주장했다. 필리핀에서는 작년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8천 명 이상의 마약 용의자가 경찰이나 자경단 등에 의해 사살됐다.

실제로 이달 중순 1t 분량의 중국산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인도네시아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대만인 마약 밀수범들은 필리핀으로의 판매 루트가 막히자 인도네시아 시장에 눈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와스 청장은 "중국 마약 당국의 정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50t의 중국산 메스암페타민이 인도네시아로 보내졌다" 면서 "이중 우리가 적발한 것은 1t에 불과하다" 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 사범 단속을 더욱 강화해 풍선효과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그들(마약사범)에게 어떤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 면서 외국인 마약 밀수범이 "체포를 피하려 저항한다면 사살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단속 현장에선 이미 저항하는 용의자는 즉각 사살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서만 최소 31명의 마약 사범을 현장에서 사살했다고 밝혔다.

2014년 취임한 조코위 대통령은 자국의 마약 중독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 사범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해 왔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 사범의 사형 집행을 옹호해 그가 취임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 등 마약 사범 10여 명이 총살됐다.

"인니 수도 이전 최선책은 정경 분리?... 연말께 윤곽 드러날 듯"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검토를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처럼 정치적 수도와 경제적 수도가 분리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올해 연말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도 이전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이 27일 펴낸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은 수도이전 후보도시 검증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연말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준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기획청의 공식입장이다.

앞서 이달초 기획청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을 위한 검토 목적으로 70억 루피아(6억 원) 예산을 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수도 이전 검토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의 교통혼잡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네비게이션 회사인 TomTom사가 GPS 데이터를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자카르타의 교통혼잡지수는 전 세계 도시 중 3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자카르타 및 수도권 인구와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자카르타가 포함된 자바 섬에는 인도네시아 전 인구의 63%가 사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섬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제활동도 자바 섬에 집중된 탓에 지역 간 발전 격차도 상당하다.

자카르타의 지반이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점도 수도 이전 검토의 배경이 됐다. 자카르타는 이미 도시면적의 40%가 해수면 보다 아래에 위치해 전 세계에서 지반 침하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개발이 계속되면서 지반침하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수 기관들이 자카르타 지반침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할 정도다.

과거 유도요노 정부도 2013년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장기 검토사안으로 분류했지만, 백지화됐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칼리만탄섬 칼리만탄 탱가 주에 있는 인구 26만명 규모의 팔랑카라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음에도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실현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수도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자카르타 기반 각종 이익단체들의 반발 역시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서는 "현지 전문가 및 정부 관료들은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수도 재건설 보다는 행정기능만 이전한 행정수도 건설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전했다. 즉 경제 기능은 자카르타에 그대로 유지해 비용 및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신민이 연구원은 "이 경우에도 행정수도와 경제중심지가 분리돼 비효율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인니 신발 수출 주춤…
"캄보디아 등 신흥국 출현으로 경쟁 격화"

인도네시아 신발 수출이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새로운 경쟁국의 부상으로 주춤하고 있다.

현지 언론 꼰딴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제화업자협회(아쁘리신도) 윈요또 구나완 회장은 "신발 수요가 세계적으로 주춤하는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 등 기존의 경쟁국 외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출현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신발 수출액은 2014년과 2015년의 성장률이 각각 7%, 8%였던 반면, 올해 1~4월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율에 그쳤다.

윈요또 회장은 "인도네시아 신발 산업의 경쟁력 약하다. 개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라고 말하며 "산업용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높은 생산 비용과 열악한 물류환경, 낮은 노동 생산성 등이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했다.

북부 깔리만딴에 신공항 4개 들어선다… 국가 예산으로 충당

향후 3년 내 인도네시아 북부 깔리만딴에 신공항 4개소가 들어선다.

현지 언론 안따라 통신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공항은 북부 깔리만딴의 롱 바완(Long Bawan)과 롱 아뿡(Long Apung), 롱 라유(Long Layu), 말리나우(Malinau) 등에 지어진다. 한편 딴중 셀로르(Selor)와 누누깐(Nunukan) 공항의 활주로 연장 공상 등 공항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공항 건설 비용으로 총 1조 루피아(약 840억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 교통부 예산에서 쓰여질 계획이다.

부디 교통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교통부 본청에서 이리안또 북부 깔리만딴 주지사와 회담을 가졌다. 부디 교통장관은 "북부 깔리만딴주를 지나는 소형 항공기 노선이 많다" 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 인프라 정비가 가장 최우선적이다" 라고 강조했다.

'팜유 대국' 말레이 · 인니, EU 팜유 수입 제한 계획에 강력 반발

전세계 팜유 생산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EU)의 팜유 수입 제한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팜유 제한) 결의안이 EU 명령으로 제정되고 사실상 차별적이라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EP)는 지난 4월 결의안을 통해 EU가 2020년까지 삼림 파괴를 촉진하는 식물성 기름을 바이오디젤에 사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에는 특히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의 주력 상품인 팜유가 포함됐다.

이번 공동 성명은 양국 무역장관들 간 최근 회담 이후 나온 것으로, 유럽의 관계 당사자들과 접촉하기 위한 합동 사절단 조직을 비롯해 양국이 팜유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한 회동을 이달 말 가질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은 팜유생산국평의회(CPOPC)를 통해 관련 계획들을 조율할 방침이다.

통신은 팜유 산업이 삼림 파괴를 유발하는 데다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불을 지르면서 매년 심각한 연무를 발생시켜 지난 수년 동안 비판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이달 초 바이오디젤 생산에 팜유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프랑스와의 교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인도네시아 팜유협회도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는 전세계 팜유 공급의 약 85%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한 비중은 8.9%로, 이 가운데 팜유가 47%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말레이시아는 팜유 생산을 통해 국민총소득을 300억 링깃(7조 8800억 원)까지 늘리고 6만 6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팜유는 피자 도우 ·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뿐만 아니라 샴푸 · 비누 · 세제 ·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도 널리 이용된다. 2015년 전세계 1인당 소비량은 7.7㎏으로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Jakarta Biz Daily · KOREA
Korean Language Newspaper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최대 구속일수

Maksimal Jangka Waktu Penahanan di Kitap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 (KUHAP)

Q

저는 5명의 동업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여 4명의 동업자는 투자금을 회수 후 회사 지분을 제게 모두 넘기고 떠났으며 그 이후 혼자 경영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쓰게 되었으며 사채를 갚지 못하자 저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된 날, 검사에 의해서 바로 구속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찰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전에 들었습니다. 경찰단계 불구속 사건을 검찰에서 검사가 바로 구속 시킬 수 있나요?

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사건을 검찰에서 송치 받은 후 검사가 직권으로 구속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0조 2항 (Pasal 20 Ayat 2 KUHAP) 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에 필요 시 형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5조 1항(Pasal 25 Ayat 1 KUHAP)에 의하면 검사는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동법 제 25조 2항 (Pasal 25 Ayat 2 KUHAP) 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상 필요 시 최대 30일까지 관할 법원장의 허가하에 피의자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수사 및 사법 체계 문화와 특수성을 감안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합의 그리고 경찰과 조율을 잘 끝내서 SP3 (수사 종결 지시서=일종의 무혐의 결정서)를 받아내고 피고소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합니다.
더군다나 검사가 이미 공소장(Surat Dakwaan)을 법원에 접수시키면 검사와의 조율뿐만 아니라 담당 재판부와의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및 절차가 많이 걸리고 복잡해서 경찰단계에서 보다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임원으로 2년 근무하였는데 지난 7월 5일 자카르타 남부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되어서 제가 회사 사장님께 면담 요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거절을 당하고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다시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 계속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남편이 제게 말합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오래 구속 수감되는 것이 맞는지요?

A

Q

예, 맞습니다. 상기 첫 번째 질문의 답변과 같이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KUHAP)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0조 1항 (Pasal 20 Ayat 1 KUHAP) 에 의하면 "사법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 시 형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4조 1항(Pasal 24 Ayat 1 KUHAP)에 의하면 사법 경찰관은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동법 제 24조 2항 (Pasal 24 Ayat 2 KUHAP)에 의하면 사법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 시 최대 40일까지 담당 검사의 허가하에 피의자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남편께서는 최장 60일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질 수 있습니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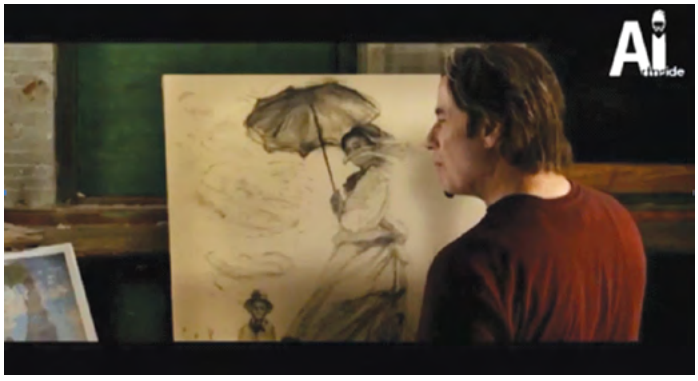
Tips 1. 참고로 하기 표와 같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최대 미결 구속일수를 첨부합니다.

단계별 구	구속 집행 주체	법적 근거	최장 구속 일수	구속 연장 최대일수
사법 경찰관 수사단계	사법 경찰관, 그리고 구속 기간 연장 시 담당검사 허가를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24조 1항 및 2항 Pasal 24 ayat (1) dan ayat (2) KUHAP	20일	40 일
검사 수사단계	검사, 그리고 구속 기간 연장 시 관할 법원장 허가를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25조 1항 및 2항 Pasal 25 ayat (1) dan ayat (2) KUHAP	20 일	30 일
1심 법원 심리단계	판사, 그리고 구속 기간 연장 시 관할 법원장 허가를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26조 1항 및 2항 Pasal 26 ayat (1) dan ayat (2) KUHAP	30 일	60 일
항소심 법원 심리단계	판사, 그리고 구속 기간 연장 시 관할 고등법원장 허가를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27조 1항 및 2항 Pasal 27 ayat (1) dan ayat (2) KUHAP	30 일	60 일
상고심 법원 심리단계	판사, 그리고 구속 기간 연장 시 대법원장 허가를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28조 1항 및 2항 Pasal 28 ayat (1) dan ayat (2) KUHAP	50 일	60 일

Tips 2. 상기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미결수 상태에서 최장 400일까지 피의자/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니 만약 수사기관에서 1차 소환 시 상기 사항 감안하시어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해결을 해야 시간, 금전 및 심리적인 피해를 덜 입습니다.

작성 :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세계 최고의 위조화가 아버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네를 훔치다!



세계 최고의 예술품 위조가(존 트라볼타 역)인 레이는 암 진단을 받은 십대 아들 윌(타이 쉐리던역)을 만나기 위해 감옥에서 일찍 빠져 나오고자 범죄 조직과 거래를 한다. 대신 그 대가로 그는 박물관에서 클로드 모네의 <파라솔을 든 여인>을 훔쳐 아무도 모르게 가짜로 바꿔 놓는 불가능한 범죄를 성공시켜야 한다. 숙련된 도둑이자 세계적인 예술품 위조꾼인 레이는 이 일을 하기에 최적의 인물이며, 아들 앞에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그렇지만 레이는 죽어가는 아들의 소망을 이뤄주면서 동시에 이 위험한 일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레이 대신 윌을 돌봐주던 할아버지 조셉(크리스토퍼 플러머 역)까지 가세한 부자들의 인생을 건 범죄가 시작된다.

영화의 색깔을 결정지을 법한 모네의 작품을 위조하는 과정은, 모네가 부인과 아들을 화폭에 담았다는 의미를 강조해, 레이의 부성애를 강조하는 기능으로 배치됐다. 하지만 영화의 속도감 있는 추격 신이 (그림을 훔치는 과정도 아닌) 윌의 소원을 위해 찾은 사창굴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대목에 쓰였다는 건 애초의 방향을 감안하고서도 맥 빠지는 결정이다. 존 트라볼타와 타이 셰리던이 만들어내는 부자지간의 느낌이 만족스럽다. 레이가 윌의 바람을 따라 오래 전에 헤어진 아내를 만나고, 아버지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를 윌에게 고백하는 대목이 노골적인 파토스 없이도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건 두 배우의 존재감 덕에 가능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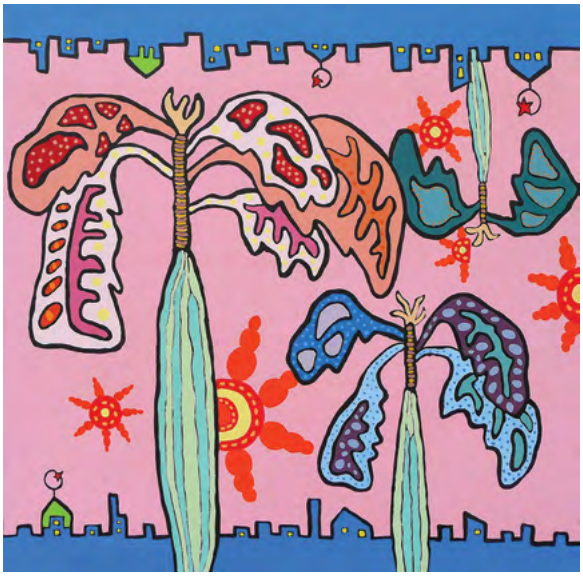
클로드 모네 [산책] 1875 캔버스에 유채 | 100x81cm |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모네의 첫 번째 부인은 카미유 동시외(Camille Doncieux)였다. 1865년 둘은 화가와 모델로 처음 만났다. "귀부인이 아니면 함께 잘 수 없다"고 호언했던 모네의 댄디즘은 카미유 앞에서 무너졌다. 모네와 카미유는 동거에 들어갔고, 1867년에 카미유는 아이를 가졌다. 모네와 카미유의 사랑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가난한 화가를 사랑한 카미유는 비극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모습은 모네의 그림 속에 영원히 남아 있다.
모네는 르아브르에서 부모와 친척이 보내오는 자금으로 돈 걱정 없이 그림에 전념할 수 있었지만, 카미유를 만난 뒤로 시련이 찾아왔다. 당시에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 여자와 눈이 맞아 결혼한다는 건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모네의 경우는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까지 생겼다. 가문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경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모네의 찬란한 빛과 그 빛만큼 뚜렷한 그림자는 인생이 당당히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할 삶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삶이란 서로 어우러져 하나가 된 명암이다. 모네가 자신의 영원한 모델이자 첫 번째 부인인 카미유 동시외(Camille Doncieux, 1847-79)와 만나고 헤어진 것도 그 명암의 한 장이었다. 빛과 그림자의 마술사인 그로서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의 본질이었다

<참고: 씨네21>

글: 김 은 정(한인 미술협회)
(kimejart0@gmail.com)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대한 향수'

신 정 근 / 수필가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hoelun23@gmail.com

그리움과 향수, 그것은 심한 두통과 고열을 동반하는 감기처럼 지표면을 부유하며 일렁이는 아련함이 있다. 재단되지 않은 방목 천을 자르고, 정갈한 박음질로 가장자리를 갈무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돌아가지 않을 곳을 미리 정해두고, 돌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치졸한 변명으로 포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국경의 남쪽에서 더 남쪽으로 꽤 먼 시간의 하늘 길을 날아야만 당도할 수 있는 술라웨시섬의 최남단에 위치한 주도 마카사르에서 체류하는 나는 이 도시에서의 심플한 삶이 제법 만족스럽게 여겨진다. 물론 행정적으로도 유한한 삶이지만 그것은 이미 유한한 범주에 있는 우리의 전 생애만큼이나 제한적인 것이기에 큰 불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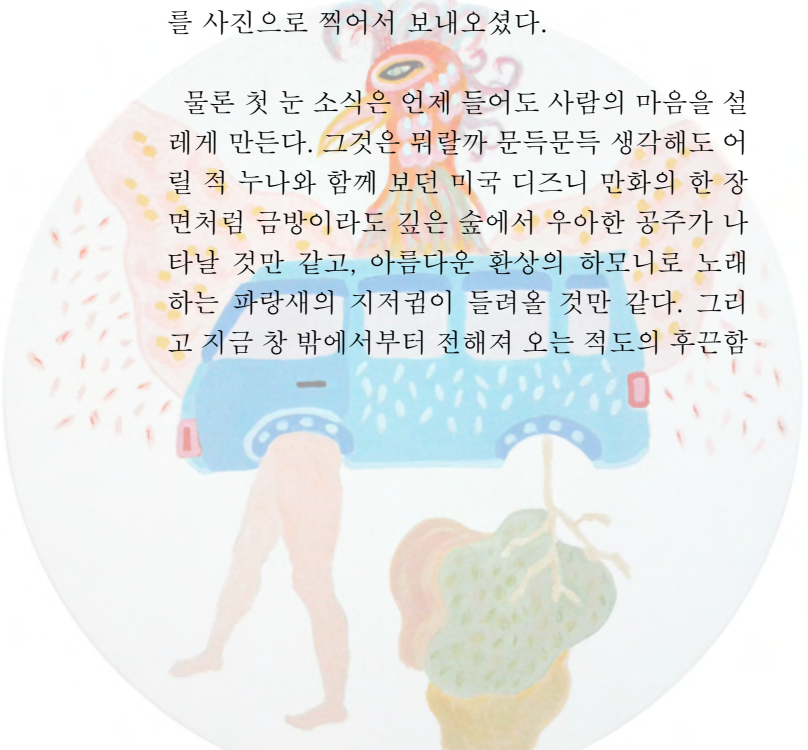
"다시 인도네시아로 갈 거에요."
내가 건조한 어투로 말을 꺼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은 달갑지 않아 하셨다.
"왜 또 가려고 하니? 이제 한국에서 터를 잡아야지."

아버지는 한심스러운 아들의 결정에 깊고 깊은 한숨으로 안타까움과 반복된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족자카르타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반년 만에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찬성할 리 없었다. 나로서도 짧은 한국 생활을 다시 정리하고 짐을 꾸려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한번 둥지를 떠난 새는 다시 돌아와도 비좁고, 익숙한 둥지의 불안과 초조로 다시 어떤 식으로든 분리될 수 밖에 없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길 위에 서기로 결심하였다. 그 어느 지붕 밑도 아닌 길 위에 말이다.

길 위에 서면 편안한 마음이 든다. 탁 트인 공간은 언제나 솔직하고, 진실한 공간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좌로든 우로든 어느 방향에서든 길은 또 다른 길을 따라 흐르고, 어디선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누군가와 어떤 도시 혹은 공간과 만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 위의 모든 것은 각각의 선율이 오선지 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하나의 음절을 만들고 마디를 나누고 완성된 악보가 되어 대중가요로, 오페라로, 뮤지컬로 그 옷을 자유자재로 갈아입으며 태어나는 음악처럼 다양한 풍경과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때론 그것이 미완성일지라도 말이다.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으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언제나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있었던 것 같다. 내리쬐는 여름의 태양 때문에 이글거리며 피어 오르는 아지랑이를 따라 오래도록 그 길을 걸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것이 어린 시절 애써 만든 눈사람을 모조리 사라지게 한 범인인지도 모른 체 말이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기억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금 아득히 먼 마카사르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길을 걷는다. 가끔은 정해지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도 필요한 인생이 아닐까? 지난해 연말 어느 이른 아침, 무심코 한국으로부터 들려 온 몇 통의 문자가 무더위에 지친 나의 게으름을 흔들어 깨웠다. 몇몇 친구들과 부모님에게서 예의 대단한 뉴스인 양 첫눈이 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 깡마른 나무에 얄팍하게 내려앉은 하얗고 청순한 순백의 첫 눈 꽃송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오셨다.



물론 첫 눈 소식은 언제 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그것은 뭐랄까 문득문득 생각해도 어릴 적 누나와 함께 보던 미국 디즈니 만화의 한 장면처럼 금방이라도 깊은 숲에서 우아한 공주가 나타날 것만 같고, 아름다운 환상의 하모니로 노래하는 파랑새의 지저귐이 들려올 것만 같다. 그리고 지금 창 밖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적도의 후끈함이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어느새 얼음 위를 딛고 있는 것 같은 환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겨울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명료한 기억 때문이지 않을까. 한 순간 한국의 지인들에게서 들려온 겨울의 소식이 나 같은 무색무취의 사람에게도 영어로는 '홈식(Homesick)' 이라고 하는 고국에 대한 '향수병'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집 냄새' 에 대한 그리움을 은근히 불러일으켰으니 말이다.

결국 나는 때로는 너무 정직하게 되돌아오는 계절의 순환을 저버리고 물러섬 없는 여름의 한가운데를 택한 것이다. 고국의 싱그러운 봄을 느껴 볼 겨를도 없이 벌써 후덥지근한 여름을 지나 만개한 가을의 단풍 숲과 떨어진 낙엽이 품은 쓸쓸한 낭만들을 뒤로하고 이미 '뜨겁다' 라고 느끼는 표면적 한계를 넘어선 적도의 어디쯤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쯤 한국의 가족들은 곧 영하의 첨예한 겨울의 송곳바람을 기다리고 있을 터이다. 지척에 사는 누나와 매형, 그리고 항상 까르르 웃는 개구쟁이 삼형제 조카들의 모습도 뇌리를 스쳐 오는 것이다. 그러한 잠재된 그리움이 오늘 보내어진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더욱 분명해지는 사실은 좁힐 수 없는 시·공간의 물리적 간극인데 그럼에도 길 위에 있는 한 우리 모두는 다시 어느 지점에서 언젠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모든 그리움이 화석으로 남는 것은 결국 그것이 '해피엔딩' 이든, '새드엔딩' 이든 이미 지나간 과거 형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고 또 축복이다. 아마도 그래서 '그리움' 혹은 '향수(鄕愁)' 라는 말이 더 매력적이고 희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쩌면 '돌아갈 수 없는' 곳은 언젠가 돌아가야만 하는 아득한 기억과 추억으로 가득한 개인의 역사가 시작된 곳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흐릿한 기억으로 잊혀지기 전에 길 위에서의 모든 여행을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야 할지도 모른다.

제 8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문학상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2. 원고 모집 기간 : 2017년 8월~9월
3. 원고분량 : 산문 부문 A4 2쪽에서~5쪽 / 시 부문 2편 이상
4. 대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 일반인(성인)
5. 보내실 곳 : lovekoin@hotmail.com / ikcskr@gmail.com (두곳으로)
6. 시상식 및 문화행사 : 일시 추후발표
7. 시상내역 :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
8. 등단 기회부여 : 성인부 대상, 최우수상 (한국문예지)

상명	성 인 부		학 생 부		시상내역
	인원	시 상	인원	시 상	
대상	1	주인니한국대사상	1	주ASEAN 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	1	재인니한인회장상	1	재인니상공회의소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1	KOICA 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1	자카르타경제신문사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	1	DUTA FINE ARTS 갤러리 상	1	인니예술가 Widayanto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	1	인니예술가상	1	인니예술가상	상장과 부상
장려상	3	한*인니문화연구원상	3	한*인니문화연구원상	상장과 부상

후원: 재외동포재단 / PT. TAEWON INDONESIA / PT. CIPTA ORION METAL

붙임 : (글자모양=바탕체, 글자크기=11, 행간=160%)
① 응모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② 원고는 위의 지정된 e-mail로 응모할 것
③ 응모작품은 제출일 이전 미발표된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④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로 판명된 경우 당선이 취소됨

문의처 : 0816-190-9976
081-875-6217
sagongjkt@gmail.com
jemmachae@hotmail.com

한.인니 문화연구원 www.ikcs.kr

308회 309회 문화탐방 Kota Tua (제 10차-11차 정기투어)

탐방지: Museum Sejarah, Museum Wayang,
Museum Seni Rupa & Keramik
일시: 308회 2017년 8월 5일 (토) 9:00-13:00
309회 2017년 8월 19일 (토) 9:00-13:00
집결: 카페바타비아 신청: (SMS/KT) 087889638265 /
0816-190-9976
밴드댓글: http://band.us/n/aca9U1KeM4ndq
회비: 30만루피아(비회원 35만) 점심 등 일체 포함

Bakso Akiaw 99

글: 이승진(한인회간사)

초반부터 말하건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운영하는 Bakso(이하 박소)전문 음식점이지만, 로컬인도네시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박소집이다. Medan 지역에서 건너온 1세대 할머니에서 지금 2세대인 아들과 같이 운영하는 전통있는 Medan 식 박소집으로 현재 끌라빠가딩, 무아라까랑 지역에 분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그란 박소가 아 한입으로 먹기 좋게 되어 있다, 쇠고기의 연한 텐더로인 부위를 염지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마법의 조합인지 기분좋게 단맛이 베어있다. 보통 박소 한 그릇은 소량의 sohun, bihun, mie kuning, kwetiau 면과 함께 잘 말아져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집은 쇠고기 박소와 면 그릇이 따로 나온다.

Bakso Akiaw 99

Rp120.000 for two people (Cash only)
영업시간: 오후 3시부터 ~ 오전 12시까지
Jl. Mangga Besar Raya, Hayam Wuruk, Jakarta Pusat

면의 양이 상당하지만, 담백하고 깊은 맛의 육수를 추가해서라도 다 먹게 된다. 여러종류의 면중에서 Kwetiau가 가장 인기가 많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Mangga Besar(줄여서 MABES) 지역 초입에 위치한 본점은 주차공간이 협소한 동네상황과,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냉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서 땀을 내야하는 실내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나기 무섭게 자리를 찾아서 앉아야 한다. 덤으로 재빠른 눈치가 필요하다.

로컬음식점임에도 자정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정말 맛있는 박소 한 그릇과 함께 땀을 식혀주는 Es Jeruk 한모금을 넘기면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참 맛있는 로컬 음식을 먹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대기시간을 장담 못하지만^^
비 오는날 가기에 더 좋은 곳이다.

이 표현이 맞나요?

글: 최서혜

르바란(이둘피트리)과 함께 양대 명절로 꼽히는 이둘아드하(**Idul Adha**, 이하 희생제)가 9월 1일(금)로 다가왔습니다. 이슬람력의 마지막 달 10일인 이둘아드하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드러내려 한 것을 기념하는 이슬람 명절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희생제 전에 이슬람 사원에 소, 양, 염소 등가축을 제물로 사원에 기증하고, 사원들은 희생제에 맞춰 이 가축들을 도축해 제물로 바치고 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Kurban은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한 단어로는 **Korban**(희생자)이 있지요. 희생 가축은 **hewan kurban**입니다. 이 동물들은 적어도 양(**domba**)은 1년 이상, 염소(**kambing**)와 소(**sapi**)는 2년 이상, 물소(**kerbau**)는 5년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희생제 제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이 희생제에 앞서 큰 사원에 가축을 기증하는 문화가 이미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마다 희생제 기간에는 대통령, 장관들이 얼마나 큰 소를 기증했는지 등이 주요 뉴스거리가 되지요. 희생제를 앞두고 대목경기를 챙기려는 주민들이 가축들을 자카르타 시내 공터에 모아놓고 산 채로 거래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제를 축하하는 인사말을 한 번 알아볼까요?

"Selamat Hari Raya Idul Adha"
"Selamat hari raya idul adha merayakan hari kurban."
"Semoga semangat berkurban kita terus tumbuh dan semoga kita saling mengingatkan untuk itu."

아하! 알쏭달쏭 표현 제대로 알기

#막혔어!

'길이 막히다' 는 표현은 자카르타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macet'**이 있습니다. 이 밖에 **macet total**(완전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막힌 상황), **ramai lancar**(통행량이 많지만, 길이 막히지 않고 원활한 상황) 등의 표현도 있지요. 그렇다면 코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다, 세면대가 막히다, 일이 막히다(잘 안 풀리다) 등의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코와 관련된 단어로는 **pilek**(코감기)부터 시작해 **bersin**(재채기), **beringus**(콧물), **hidung mampat**(코가 막히다) 등이 있습니다. 세면대가 막힌 것은 **wastafelnya mampat**(세면대가 막혔다), **airnya tidak surut**(물이 안 빠진다, 안 내려간다) 등의 표현을 씁니다.

이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는 **bisnisnya tidak lancar**(비즈니스가 잘 안 풀린다)를 비롯해 **terhalangan**(방해받는), **terganggu**(방해받는), **bermasalah**(문제가 있는) 등의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원활하다는 표현은 **bisnis lancar** 또는 **bisnis berjalan dengan lancar**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라고 하는 건 말이야

"**(Kalau) yang namanya jodoh itu pasti akan bertemu**(배필은 만나게 되어있어)"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라는 건 말이지" 하면서 폼 잡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kalau yang namanya** 명사~" 로 말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yang namanya cinta itu harus saling mengerti dan menyayangi**(사랑이란 건 말이지, 반드시 서로 이해하고 아껴줘야 하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

#잠자는 경찰?

polisi tidur, 일명 **poldur** 들어보셨나요. 잠자는 경찰은 바로 '과속방지턱' 을 말하는 단어에요. 누워서 잠자는 경찰이라니 말이 되지요?

#저 사람은 먹는 양이 크네~

Orang itu porsinya gede(besar, banyak), ya! **Porsi**는 한 그릇, 두 그릇을 셀 때도 쓰지만, 영어의 **Portion**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mengurangi porsi makan'**하면, 먹는 양을 줄인다는 뜻이고 **'menambah porsi makan'**은 먹는 양을 늘린다는 뜻이 되겠죠. 부분, 몫을 의미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면 **'Sejak diluncurkan 8 bulan lalu, Go-Pay telah mencapai porsi lebih dari 50% transaksi di Go-Jek saat ini**(출시한지 8개월이 지난 후, 고페이는 이미 전체 고젝 결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에서 **porsi**는 **persentasi**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는 **tentu saja!**를 쓰지만 보통 일단 회화에서 "정말, 맞아?" 라고 할 때 **"memang, benar?"** , 도대체 왜? **"memang kenapa?"** 등 **memang**을 사용해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memang wajar saja**(진짜 당연한 거였어.)" 같은 표현에서요. 한편, 이치에 맞다, 온당한, 합당하다는 의미의 당연하다는 표현은 wajar를 씁니다. **Wajar**는 **merasa wajar**(당연하다고 느끼다), **menganggap wajar**(당연하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자주 씁니다. '적정한, 알맞은, 적합한, 합당한' 이라는 비슷한 의미의 **pantas**도 자주 쓰이는데 **'Pantasan!**(어쩐지!)' , **'dinilai tidak pantas**(적합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등으로 표현하며 **layak**(적당한, 알맞은, 마땅한), **masuk akal**(사리에 맞는) 등도 자주 쓰입니다.

#바로 그거야!

Ini dia!는 '바로 이거야!' , **Itu dia!**는 '바로 그거야!' 입니다. 대화하다가 '그러니까 말이야~, 내말이~' 는 **"makanya~"**를 자주 쓰고, **"Nah, Itu dia~"**도 같은 의미로 씁니다.

#오히려

'오히려~, 되려~' 라는 표현은 **malah**와 **Justru**가 있습니다. **malah**를 쓴 표현을 찾아보면

'Aneh, ditahan KPK politikus ini kok malah senang(이상하게도, 부패방지청에 구속된 이 정치인은 오히려 기뻐했다)', 'Bayi dipijat, bikin sehat atau malah bahaya?(베이비 마사지, 건강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위험할까?)' 등이 있습니다. Justru는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라는 뜻 이외에도, '진짜로, 사실은'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Ironis! Kota Hujan Justru Malah Krisis Air Bersih(아이러니! 비의 도시(보고르)가 오히려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니)', 'Kebanyakan Tidur di Akhir Pekan Justru Bikin Lelah(주말에 과한 수면은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든다)'. 이렇게 두 문장에서 justru는 '오히려, 되려' 의 의미로 쓰였지만, 'Justru waktu saya sedang sibuk-sibuknya dia datang(내가 진짜로 바쁠 때 그가 왔다)', 'Justru pada saat bulan ini dia tidak punya uang sama sekali(마침 그때 그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에서는 '진짜로, 실로' 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오른팔이야!

tangan kanan는 최측근, 즉 믿을 수 있는 부하직원, 비서, 또는 친구 등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뉴스 제목을 살펴볼까요. "Tangan kanan CEO Facebook Mark Zuckerberg dirayu jadi CEO Uber(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오른팔, 우버 CEO 자리 제의받다)". 여기서 Tangan kanan으로 불린 사람은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CEO입니다. Tangan kanan으로 불릴 만 하지요.

#mata와 관련된 관용 표현과 단어들

Lapar mata는 배가 고파서 눈으로 보는 것 또는 사고 싶어서 눈으로 보는 것(cuci mata)이고, cuci mata(merintang mata)는 연예인이나 아름다운 걸 보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비슷한 우리말로 '안구 정화(?)' 가 있습니다. gelap mata는 직역하면 '눈이 어두운' 이라는 의미로, 진짜 뜻은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mata-mata는 스파이, 간첩을 permata, semata는 보석, air mata는 눈물, mata pisau는 칼날, mata pencarian은 생계수단, 생업, mata jarum은 바늘귀입니다.

#아부쟁이

bermuka(berwajah) dua라고도 하지만 자주 쓰는 관용표현은 'cari muka'입니다. "Kamu cari muka sama bos!(너는 보스한테 아부를 떠는구나!)' 칭찬을 받기 위해 약간 정치적인 립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보고 짜리무까라고 부르죠. bermuka dua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 즉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냥 포기할래

"Ya, pasrah ajalah!(그냥 포기하자)" pasrah는 굴복하다, 포기하다, 그만두다라는 뜻입니다. "Dia pasrah banget", "dah pasrah" 이렇게 자주 쓰는데요, 다른 뉘앙스로는 pasrah kepada nasibnya(운명에 굴복하다), terima nasib의 의미로도 씁니다. 비슷한 동사로는 menyerahkan '넘겨주다, 양도하다' 가 있습니다. menyerahkan diri는 '패배를 인정하다, 항복하다' 입니다. terserah는 '알아서 하다, 일임되다, 맡겨지다' 라는 뜻으로 보통 "terserah kamu!" 하면 '네 맘대로 해' 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비슷한 tergantung은 '~에 달려있다' 라는 뜻입니다.

#바퀴에 바람이 빠졌군! 배가 홀쭉해졌어!

바퀴에 바람이 빠졌어!, 바퀴가 펑크났어!는 "Bannya kempes"입니다. 공기가 빠진 것 이외에도 배가 홀쭉해졌다는 말을 할 때에도 "Perut kempes"라고 씁니다. "Gerakan ini secara cepat membuat perut kempes dan rata(이 동작은 빠른 시간 내에 배를 들어가게 하고, 평평하게 만듭니다)."

#애매한데~

tanggung jawab 많이 들어보셨죠. 책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tanggung**은 '받치다, 짊어지다, 견디다, 참다' 등의 의미입니다. 이 **tanggung**의 두 번째 뜻이 바로 '불충분한, 완전하지 못한, 애매한' 입니다. **tanggung**의 me-동사 **menanggung**을 줄여 회화에서는 **nanggung**을 씁니다. 다음 예시를 볼까요. **nanggung banget**(엄청 애매해), **nanggung banget buah mangga ini sebaiknya kamu habiskan aja!**(이 망고가 애매하게 남았으니, 네가 다 먹어버려!), **'nanggung nanti saya sekalian bayar sama tagihan bulan ini saja ya!**(애매하니까 제가 나중에 이달 청구서랑 같이 지불할게요.)'
tanggung과 발음상 헷갈리는 단어는 **tanggap**이 있습니다. **tanggap**은 경청하다, 관찰하다, 주의를 '기울여~하다' 라는 뜻입니다. **cepat tanggap**은 '말귀가 밝다, 이해가 빠르다, 센스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bisa와 sanggup의 차이

sanggup은 보통 부정적 표현인 **tidak**과 자주 붙어 쓰이는데, **tidak bisa**와 같이 '~할 수 없다'의 뜻 뿐만 아니라 **'not affordable**(능력이 없는)', **'tidak mampu, tidak dapat'**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sanggup**은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Sepertinya aku tidak sanggup bayar utang untuk bulan ini, paling bulan depan saja.**(아마도 이 달에는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아, 다음달에 갚지 뭐)'

#바르다와 쓰다듬다

연고를 바르다, 로션을 바르다, 빵에 잼을 바르다 등에서 쓰는 '바르다' 는 어근 **oles**에서 온 동사 **'mengoleskan'** 을 씁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다, 아기 머리를 쓰다듬다 등에서 쓰는 '쓰다듬다' 는 어근 **elus**에서 온 **'mengeluskan'**을 씁니다.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해서 써봅시다.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할 경우, me-접사가 **meng-**형태로 오는 것 잊지 마세요.

#에딸라스 '진열장'

etalase(발음 '에딸라스')는 가게 앞 유리로 되어있는 상품진열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Banyak rasa roti ada di dalam etalase kaca**(다양한 맛의 빵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 있다)' 이 밖에 관용적 표현으로 **etalase**가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Surabaya selama ini telah menjadi etalase budaya dari berbagai negara.**(지금까지 수라바야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문화를 보여주는 쇼윈도 역할을 해왔다.)", **"Sebagai etalase peradaban, keberadaan museum di Indonesia jelas masih kurang, baik dari sisi sumber daya manusia, bangunan museum yang berhubungan dengan penampilan, promosi serta koleksi barang-barang bersejarahnya.**(문화적 쇼윈도로 불리는 박물관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박물관들은 인력 면에서도, 박물관 건물 면에서도, 홍보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 수집 면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ambil과 bawa

ambil과 **bawa**모두 '~을 가져오다' 라는 뜻이지만 쓰이는 상황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입니다. 주로**ambil**은 물건에만 쓰이는 반면, **bawa**는 물건과 사람 모두 쓸 수 있습니다. **bawa orang** 하면 '사람을 데려가다' 는 뜻이 되거든요. 뉘앙스로는 **ambil**은 지금 내가 특정 물건을 들고(**pegang**) 있지 않은 상황에서 **suruh ambil**하면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말이 됩니다. **bawa**는 보통 가지고(소지한 채) 어딘가로 가져갈 때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bawa pulang**(가지고 귀가하다), **'Boleh saya bawa barang ini ke kabin?**(기내로 이 물건을 가져가도 될까요?)', 즉 **'bawa** 물건/사람 ke 장소' 형태로 쓰이지요. 이 밖에 **bawa**는 '담당하게 되다, 책임을 지다' 는 뜻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밖에 '~을 불러오다' 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Reshuffle itu akan membawa perbaikan**(개각은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신개념의 인문학' 강의를 듣고

글 : 전주영(JIS 10학년)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 섹션(회장 이수진)은 지난 7월 11일(화) 한인회 도서관에서 '신개념의 인문학 ' 특별 강연을 개최하였다. 부산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은경 교수가 지루하지않고 맛깔스럽게 강의를 하였다.

이날 강연은 '해외 소재 한국 문화 유산' 이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고고미술사학과 불교미술 전문가인 박 교수는 해외에 있는 한국의 유서 깊은 주요 문화 유산들의 작품성과 해외로 반출된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에 대해 강조했다.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 현황을 설명하면서 운을 떼었는데, 그 수치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박교수는 "전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한국의 문화재는 족히 15만점이 넘어간다" 며 "당장 일본에 소장되어있는 한국의 문화재가 67,000점이 넘고 있다" 고 말했다.

해외에 소재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으로는 직지심체요절 밖에 몰랐던 나로써는 이 엄청난 수치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또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유산들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분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곧이어 박교수는 해외에 있는 한국의 유서 깊은 주요 문화 유산들의 작품성과 해외로 반출된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우수한 한국문화유산을 잘 지켜나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일본 경신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불화 걸작 수월관음도는 세계적인 초상화로 알려진 모나리자와 견주어 보아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며 "정교하게 짜여진 한 폭의 비단 위에 그려진 온화한 표정의 관세음보살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납득이 잘 가지 않았다. 모나리자를 보러 간다고 프랑스 파리로 간다는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수월관음도를 보러 일본 경신사에 간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허나 모나리자보다 약 200년 일찍 그려진 이 그림의 청아한 색감과 그림의 뛰어난 묘사력을 보고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가 없었다.

게다가 약 420 cm 가 넘어가는 이 대작을 보고 그 크기에 놀라는 한편, 혼이 담긴 섬세한 붓놀림으로 그어진 획들을 보고 조상들의 지혜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우수한 색감과 양식으로 고려불화의 백미로도 일컬어지는 이 작품을 한국이 아닌 일본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웠다.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한국 예술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우수한 색감과 양식으로 고려불화의 백미로도 일컬어지는 이 작품을 한국이 아닌 일본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강연을 주최한 헤리티지 코리안섹션 이수진 회장은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이번 강연회를 열었다" 며 "우리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문화재 반환을 위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힘을 보태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섹션은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증진을 목표로하는 비영리 단체로, 교민들이 문화를 많이 접해볼 수 있도록 강연회 등 다양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평소에 나는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그동안 접하였던 역사책들에는 이러한 주제를 깊이있게 접하지 못 해 호기심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강연을 통해 한국 예술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나의 선조들이 이런 걸작을 그렸다는 사실이 나에게 한국사람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다.

한.인니 교육문화 교류재단 주관, 부산 동아대학교 CORE사업단 인턴 대학생 13명 인도네시아 방문

13명의 학생들이 7월 5일 인도네시아에 한 달간의 일정으로 들어와서, 인도네시아 언어 공부, 모나스 광장 방문 및 시티투어, Korean Funday 행사 참가등의 활동을 했다. 7월 5일 부터 개괄적인 인도네시아를 배우고 이후 7월 10일부터 대략 2주간 마나도, 메단, 족자, 자카르타 아트마자 대학교,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섹션 등으로 나뉘어 2~3명이 한 조로 파견되어 인턴활동을 했다.
마나도 파견된 학생 3명과 메단에 파견된 학생 3명, 족자에 파견된 학생 2명, 아트마자야 대학교에 파견된 학생들은 한국어를 인니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활동 및 인니어 배우기 수업 등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헤리티지에 파견된 학생2명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및 역사 문화 자료 정리, 인니어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족자 술탄 공주와 간담회 개최

지난 2017년 1월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섹션(회장 이수진)과 MOU 체결한 부산 동아대학교(총장 한석정) CORE사업단(단장 박은경 교수)이 이번 7월 10일(월)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족자의 공주 Gusti Kanjeng Ratu Mangkubumi 술탄 하멩꾸부워노 10세(현 족자 주지사)의 장녀와 한.인니 교육문화 교류 재단(단장 크리스 장)이 자리를 마련하여 간담회를 Ascott Kuningan Jakarta에서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앞으로 부산에서 개최될 국제 컨퍼런스에 대해 심도있게 의논했다.
올해 12월 1일 부산 동아대학교 CORE사업단은 국제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5개국가에서 명사를 초청하는데 그 중 한 국가로서 인도네시아가 속하며 인도네시아 박물관 관계자도 함께 초대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재 보존 정책과 세계 문화유산 및 족자 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부산 동아대학교 CORE사업단 재인니 한인회 방문

지난 7월 11일 재 인니 한인회는 부산 동아대학교 CORE사업단(단장 박은경교수)의 방문을 받았고 MOU를 체결했다.

부산 동아대학교는 해마다 대학생 인턴쉽 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열어 나가려고 애쓰고 있으며 동시에 인도네시아 유학생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양영연회장과 강희중 수석 부회장이 동석한 가운데 부산 동아대학교의 인문학 학장인 박은경교수는 재인니 한인회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의 취업 알선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에대해 재인니 한인회 양영연 회장은 “현재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에 대해 심각성을 공감한다. 앞으로 부산 동아대학교가 해외에서 좋은 기회를 얻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문화유산 미래·대체 복원을 준비하다

디지털 문화유산기술

문화재 분야에서 3차원 스캐닝 정보 활용이 진화하고 있다. 문화재 외관을 구현하는 3차원 형태를 넘어서, 색깔·소리·재질·냄새까지 재현할 수 있는 시대이다. 디지털시각화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가상현실기술로 유산 속 시간여행이 가능해졌다.

01. 디지털화한 쇼베 동굴의 정보를 살펴보는 관람객
02. 복원을 위한 쇼베 동굴 탐사 활동
03. 쇼베 동물 내 채취한 동굴벽화 복원

파괴와 훼손 속, 문화유산이 선택한 디지털화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아온 '사막의 진주' 팔미라가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에 의해 한순간에 폭파되고, 이를 지키던 시리아 고고학자 칼리드 알아사드 박사 또한 유명을 달리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인류의 소중한 유산들이 전쟁과 테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개발 등 인위적 행위에 의해, 혹은 지진·폭풍우·화재 등 자연적 기상이변에 의해 끊임없이 파괴되거나 훼손되고 있다.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不可逆性)'의 속성을 갖고 있다. 지금 당장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화유산에 대한 다방면의 노력 가운데 최근에는 유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아날로그 식뿐만 아니라 파괴나 훼손에 대비해 미래 복원이나 대체 복원을 위한 디지털문화유산기술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012년 유네스코는 기록유산의 디지털화와 장기보존을 위한 벤쿠버선언을 발표하면서 디지털문화유산(Digital Heritage) 개념을 공식화했다. 유산의 3차원 스캐닝 등 물리화학 정보의 디지털 기록화, 유산 정보의 축적·분류·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화, 공간·시간·주제 기반의 고증 그래픽을 통해 직관적 이해를 돕는 디지털시각화 등 원형 정보의 보존과 일반인의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아날로그 유산 복제

2015년 인류 최초의 장식동굴로 평가받는 '쇼베 동굴 재현을 위한 그랜드 공간 프로젝트(Grand Projet Espace de Restitution de la Grotte Chauvet, ERGC)'는 디지털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수만 여 년 동안 밀폐되었던 프랑스의 쇼베 동굴은 1994년 개방 이후 급격하게 훼손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막는 동시에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동굴은 폐쇄조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4년 동안 새로운 복제동굴을 만들기 위한 다방면의 시도가 이뤄졌고 마침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었다.

동굴 발견 이후 축적된 발굴조사 정보를 기반으로 동굴 지형에 대한 3차원 정밀스캐닝, 1,000여 점의 동굴벽화에 대한 분광정보 채취 작업, 그밖에 재질·습도·온도·공명에 대한 정보를 분석·고증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로써 쇼베 동굴은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제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물리화학적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아날로그 유산 복제에 활용하는 것은 원형훼손을 방지하는 유지 복원과 미래 복원에 대한 정보의 장기보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월간 문화재 사랑)

인도네시아 민법(19)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17.2.5.2.2. 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의 치료, 왕진, 조제 혹은 근로에 관한 채권, 집달리의 채권, 학교 교사의 급여 등 채권, 학원 강사의 급여 등 채권, 기숙사가 있는 학교 혹은 학원의 기숙사비 및 식대 등 채권, 상술한 17.2.5.1.1." 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해당 권리 발생일로부터 2(이)년이다.

17.2.5.2.3.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재판 시에는 수임한 사건의 판결일로부터 2(이)년, 사건을 합의로 처리 시에는 합의일로부터 2년, 변호사에게 준 사건 처리 위임장을 취소한 날로부터 2(이)년이며, 사건이 판결이 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위임장 취소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십)년이다. 공증인의 공증비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2(이)년이다.

17.2.5.2.4. 목공, 석공 등 기능공의 보수 및 사용한 자재대에 대한 채권과 물건을 공급한 가게의 물건 값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5(오)년이며 이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도 5(오)년이다.

17.2.5.3. 가족법상의 청구권

가족법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를 들면 자녀를 오래 돌보지 않았다고 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간에 이혼 시 재산권 청구 혹은 상속 문제 등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17.2.5.4.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별로 입법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식재산권의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상표는 10년, 의장은 10년, 저작권은 작가의 생존 기간과 작가 사후 50년 간, 전자 설계도면은 10년, 식물특허는 계절 식물은 20년, 년간 식물은 25년이다. 보호 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식재산권이 있고 연장이 불가한 지식재산권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소멸시효와 지식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다른 개념이지만 시효가 있다는 권리 면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17.2.5.5. 공법상의 권리

국세법상의 국가의 세금 부과권 및 징수권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되며, 지방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및 공과금에의 부과권 및 징수권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17.2.6.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자 혹은 의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그 행위를 하는 순간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시효의 중단이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그 후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기산된다. "예" 를 들면 돈을 빌려 준 경우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0년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30년 동안 채무자에게 채권 변제 요구를 하지 않으면 30년이 지나면 채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법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 기간이 최고한 날로부터 다시 30년간이 기산되어 전 기간으로 보면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50년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정기적으로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여 채권이 시효가 지나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다. 청구 방법은 재판외 청구와 재판상 청구가 있다. 재판외 청구란 채권자에게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흔히 말하는 최고를 뜻한다. 최고의 주체는 채권자 혹은 다른 권리의 보유자이며 최고의 대상은 채무자이다. 최고를 하면 최고가 채무자에게 도달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최고장을 채무자가 수령했다는 수령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7.2.7.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였다가 그 사정이 없어지면 다시 진행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며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에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설정되는 경우까지 정지되며 부부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18. 입증(Pembuktian)

인도네시아 법체계에서는 입증을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네델란드 식민 정부에서 공포한 입증을 규정한 법규들을 독립건국한지 72년이 지난 2017년 8월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럽다. 입증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는 : i) 1848년 네델란드 식민통치정부에서 공포한 민법(Buegerlijk Wetboek/BW/Kitab Undang_Undang Hukum Perdata), ii)1848년 네델란드 식민통치정부에서 공포한 Jawa 및 Madura 지역을 위한 소송법(Herzien Inlandsch Reglement/ HIR/Hukum Acara Yang Berlaku di Jawa dan Madura, *민사 및 형사소송 공용), iii)1927년 네델란드 식민통치정부가 공포한 Jawa 및 Madura 지역 이외의 지역을 위한 소송법(Rechtreglement voor de Buitengewesten/RBG/Hukum Acara Yang Berlaku di luar Jawa dan Madura, *민사 및 형사소송 공용), iv)독립건국 후 1981년 공포한 형사소송법(Undang_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 v)1989년 공포한 종교법원에 관한 법(Undang_Undang Pengadilan Agama/ UUPA)가 있다.

다른 여러 법률에 규정된 입증에 관하여는 다른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기회에는 민법에 규정된 입증에 관하여서만 설명한다. 인도네시아 민법은 입증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즉, 민법 제1865조에서 1945조까지 81조항에서 입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865조에 자신이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특정한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민법에 규정된 증거의 종류는 i)서면 증거, ii) 증인, iii)추정, iv)시인, v)선서, vi)민법조항에서 인정되는 증거이다. (*비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의 종류는 i)증인의 증언, ii)전문가의 의견, iii)서면 증거, iv)암시 증거물, v)피고의 진술이며, vi)이미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카르타 시를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찔리웅강이 있으며 이 강의 평균 수위는 우기에는 높아지고 건기에는 낮아진다")

(다음 호에 계속)

집 고치기로 깨달은 잘못과 실수를 대처하는 지혜로움

이규보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이옥설(理屋說)

김홍도 〈기와이기〉 ©국립중앙박물관

>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중략) 그중의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 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중략)
>
>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이옥설 중

집을 고치는 일은 인간사와 참으로 닮았습니다. 집에 비가 새기 시작한 것을 오래 내버려 두면 나무가 모두 썩어 못쓰게 될 뿐만 아니라 제때 고치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냉철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실패를 맛보는 순간마다 혹시 주변 상황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황이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도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지요. 무인들이 집권하면서 그때까지 정사를 담당했던 문인들은 대부분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신이 쓰일 곳이 없다 하여 혹은 할 일이 없다 하여 포기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일컬었던 저도, 그런 흐름 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방황했습니다. 20대 초반 과거에 급제했지만, 저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만 탓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자 고칠 것 천지더군요. 나 혼자 고매한 줄 알고 거만하게 세상을 살아온 것이 보였습니다. 더 겸손하기로 했지요. 저의 그런 변화를 두고 후세의 사람들은 지조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 선택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문호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글을 남길 수 있었지요.

사실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잘못, 실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이란 생각이 들겠죠. 그런 작은 일로 속을 끓이며 '절망'에 허우적대는 동안 마음의 지붕에는 비가 새며 썩기 시작합니다. 저는 나이 40세가 되어서야 실수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고,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찍 이를 깨달았다면 보람되는 일을 더 많이 했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치기를 꺼리지 말 것이다)' 라고 하였지요. 실수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바로 고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집을 튼튼하고 오래도록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글·정병헌(전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이규보

고려 중기 대문호인 이규보의 작품은 자유분방하고 웅장한 것이 특징이다. 떠오른 바를 그대로 표출하는 자기표현이 두드러지며 옛사람들의 문체를 그대로 따르지 않은 신선하고 독창적인 글을 선보였다. 그가 지은 『동국이상국집』은 53권으로 구성된 시문집으로 〈동명왕편〉과 자신의 삶을 적은 〈백운거사전〉 등이 실려 있다.

2017년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납부 명단

(기준: 납부일 순)

번호	성 명	금액(IDR)	비고
85	신기엽	300,000	2017
86	신호진	300,000	2017
87	김원관	300,000	2017
88	정 권	300,000	2017
89	구본식	300,000	2017
90	박중곤	300,000	2017
91	윤승욱	300,000	2017
92	황철원	300,000	2017
93	문상은	300,000	2017
94	류근수	300,000	2017
95	김재훈	300,000	2017
96	권영선	300,000	2017
97	오은선	300,000	2017
98	이성용	300,000	2017
99	이현용	300,000	2017
100	현상범	300,000	2017
101	이영화	300,000	2017
총 금액		Rp5.100.000	

동포 안내문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안내(8.15(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한인회에서는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는 동포 누구나 참석 가능하시니, 경축식에 참석하시어 우리나라의 광복 72주년을 다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7년 8월 15일(화), 오전 9시

- 가능한 한 행사 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1층 강당

- 대사관 주소 :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57 Jakarta

다. 참석자 유의사항

- 행사 참석 동포분들께서는 보안을 위해, 여권 또는 체류허가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2017년도 임원찬조금 납부 명단

※ 기준: 2017년 7월 4일까지

번호	구분	성 명	회사명	금액	
				USD	IDR
52	명예고문	신기엽	HANINDO EXPRESS UTAMA	5,000	
53	부회장	이승원	NEO HYOLIM		67,500,000
54	자문위원	최병우	ANEKA PANEL INDONESIA		13,247,000
55	자문위원	전민식	POWER TECH INDONESIA		13.300.000
56	자문위원	현상범	INAMEN JAYA		13,500,000
57	이사	김원관	GF INDONESIA		13,500,000
58	이사	신호진	HANINDO EXPRESS UTAMA	1000	
59	이사	김두련	MIWON INDONESIA		13,247,000
60	이사	김민규	WOORI CONSULTING&WOORI TOUR		13,247,000
61	이사	김서겸	ACCENTUATES		13,247,000
62	이사	김송정	UNICON INDO MESIN		13,247,000
63	이사	김영율	SUNG CHANG INDONESIA		13,247,000
64	이사	승범수	KORINDO GROUP		13,247,000
65	이사	신만기	PARKLAND WORLD INDONESIA		13,247,000
66	이사	안창섭	PETRASAKTI MADYATAMA		13,247,000
67	이사	윤태현	DREAM SENTOSA		13,247,000
68	이사	이강현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13,247,000
69	이사	이세호	GORI GLOBAL INDONESIA		13,247,000
70	이사	이완주	OCEAN ASIA INDUSTRY		13,247,000
71	이사	최원혁	HILON FELT		13,247,000
72	이사	표기훈	HIT		13,247,000
73	이사	홍종서	ARION TECH INDONESIA		13,247,000
총 금액				$6,000	Rp,319,752,000

[한인회 회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JAC Recruitment

한국인 취업 안내
JAC는 현지 한국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아래 메일로 CV(영어/ 한글) 송부바랍니다.

유능한 현지 인재 채용 … 정말 어려우시죠?

•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 채용 (중간관리자,마케팅,인사,회계,법률, IT 및 임원급)
• 회사/사무소 설립, 노동허가(KITAS) 외 각종 인허가, BKPM신청부터 원-스톱 토탈서비스
• 외국기업· 사무소 회계 세무 대행, 단기간 직원파견, 회사설립 전 직원고용계약 대행(EWE)

Korean Desk
Tel: 021- 315-9504, 9506 (영어/인니어)
Mobile: 0878-8042-9794 (한국어)
E-mail: koreandesk.id@jac-recruitment.com
www.jac-recruitment.co.id

본점 : Menara Cakrawala 18 Fl. Jl. MH. Thamrin No. 9 Jakarta / 지점 : Bekasi, Karawang, Surabaya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 연 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人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복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례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한인뉴스는 <소개합니다> 코너를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인사동정 및 새로 연 사업체를 무료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인뉴스 편집국 (Telp. 021-521-2515/ haninnewsinni@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실어 드리겠습니다.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숭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종)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혜광고(서동히)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군)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죠지언 퍼니쳐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붕냐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2017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박형동 부회장/ 공연/ 한바패 회장	0811 149 586
신돈철 부회장/ 전시/ 미협 회장	0878 5480 4815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기획/ 헤리티지 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 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오케스트라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앙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때 여성합창단 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오케스트라 단장: 허민경	0812 1316 2064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신정일	0811 924 328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효(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723 5360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 2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인재채용

JAC Recruitment	315 9504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 1442 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져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뽄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최병우	0811-956-227	회장
강희중	0816-798-221	검도협회장
곽봉규	0815-410-4167	탁구협회장
김송정	0816-716-293	볼링협회장
김태화	0811-188-2938	스쿼시협회장
방진학	0811-198-282	태권도협회장
배응식	0811-965-2775	용무도협회장
이광희	0811-998-186	축구협회장
정성원	0817-785-348	테니스협회장
한현봉	0811-111-5800	골프협회장
이기홍	0819-812-507	사무총장
성기채	0815-1070-2424	사무차장

발 리 (지역번호 0361)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날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및도난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하따공항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공항).....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항공(시내).....021)5721381~3
(공항).....021)5591 3229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6555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음미하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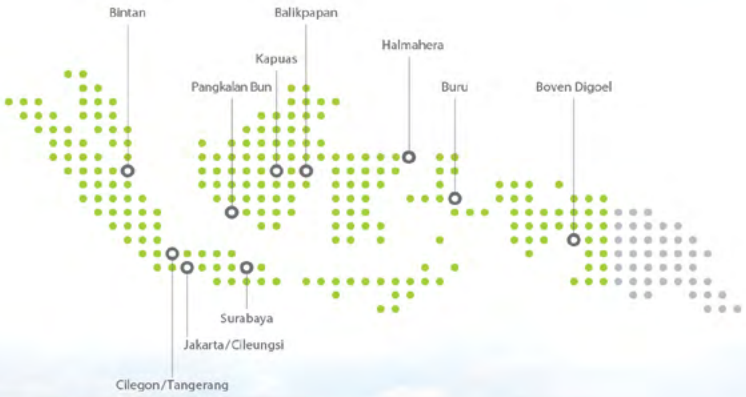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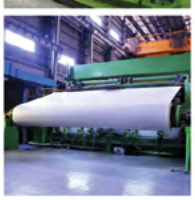
Green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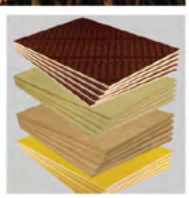
KORINDO P1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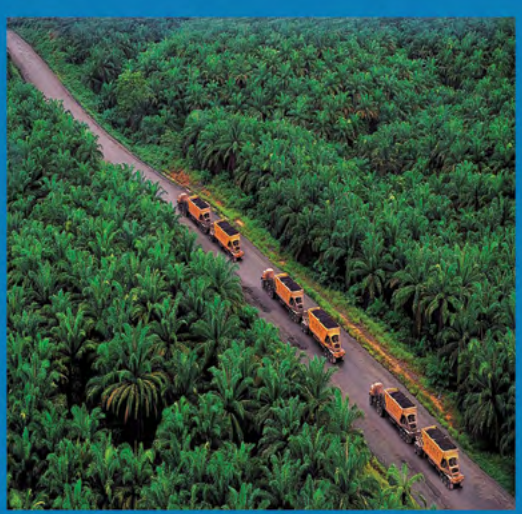


Forestry Management
Timber Plantation
Oil Palm Plantation
Rubber Plantation
Plywood
Plant
Special Vehicle
Battery Separator
Coal & Limestone Mining
Finance

Total Logistics
Shipping Division
Engineering & Construction
International Business Div.
Real Estate Management
Rest area & Gas station
SG Consulting
Wind Tower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KORINDO
KORINDO GROUP
WISMA KORINDO JL. M.T. HARYONO KAV.62 JAKARTA 12780, INDONESIA
T +62-21-797-5959 F +62-21-797-6401 www.korindo.co.id

KIDECO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www.kideco.com
marketing@kideco.co.id